경기다문화뉴스
The Gyeonggi Multicultural Family News

PAPAYA STORY
외국인주민을 위한 토탈정보서비스 파파야 스토리
www.papayastory.com
지금 스마트폰에서 papayastory를 검색하세요

제323호 2026년 08월 16일 (격주간) 발행인 겸 편집인 송하성 등록번호 경기 다 50340 전화 031-8001-0211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정조로 921번길 5(영화동), 3층
인쇄인 장용호 경기도 부천시 수도로 164 (주)아이피디 / danews1@daum.net 후원계좌 경기다문화뉴스 110-408-662725 신한은행 <1쇄>



△2026-2027 수원 방문의 해를 맞아 수원을 전 세계에 알리는 역할을 하는 '새빛 글로벌 프렌즈'가 첫발을 내디뎠다. 수원특례시(시장 이재준)는 9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새빛 글로벌 프렌즈 스위치 온 발대식'을 열었다. 새빛 글로벌 프렌즈는 수원의 매력과 아름다움, 관광자원을 세계에 홍보하는 역할을 한다. 수원시는 지난 4~5월 새빛 글로벌 프렌즈로 활동할 이주민을 모집했고, 135명을 선발했다. 〈관련 기사 10면〉 송하성 기자

경기도, 저소득 도민 대상 기존주택 전세임대 입주자 상시 모집

경기도와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도내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8월 4일부터 '2026년 기존주택 전세임대' 입주자를 상시 모집한다.

*기존주택 전세임대가 뭐야? : 기존주택 전세임대는 한국의 다양한 주거복지제도 중 하나다. 입주자로 선정된 사람이 원하는 주택을 찾으면 GH가 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입주자에게 재임대하는 사업이다.

*임대료는 저렴해? : 임대조건은 매우 좋다. GH가 전세보증금을 최대 1억 3천만 원 한도에서 95%까지 지원한다. 지원받은 금액에 대해서는 연 1.2~2.2%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를 GH에 납부하면 된다. 입주자는 최대 30년까지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다.

*누가 신청할 수 있어? : 신청은 소득이 낮은 경기도민과 다문화가족이 할 수 있다. 먼저 경기도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구성원이어야 한다. 여기에 ▲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인 만 65세 이상 고령자 등 3가지 중에 한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외국인은 신청할 수 없다.

*어디에 신청해? : 신청은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진행하면 된다. 행정복지센터에서 입주자로 선정됐다는 통보를 받은 뒤 원하는 집을 찾으면 된다. '접수 종료'를 공고할 때까지 상시 모집하며, 자세한 사항은 GH 전세임대 전용 콜센터(1588-8056) 또는 경기주택도시공사 누리집(https://gh.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경기도는 이번 상시모집을 통해 정기 모집 기간을 놓쳤거나 긴급하게 주거지원이 필요한 저소득 가구가 필요한 시기에 전세임대주택을 신청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태수 경기도 주택정책과장은 "주거지원이 필요한 도민들이 원하는 지역에서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시군, GH와 함께 대상자 발굴과 안내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京畿道和京畿住宅城市公社(GH)为保障道内低收入群体的居住稳定，自8月4日起常年招募"2026年现有住房全租租赁"入住者。

*什么是现有住房全租租赁？：现有住房全租租赁是韩国多种居住福利制度之一。被选为入住者的人找到自己想要的住房后，GH与房屋所有者签订全租房合同，再将房屋转租给入住者。

*租金便宜吗？：租赁条件非常好。GH最高可提供1.3亿韩元的全租保证金支援，最高可覆盖95%。对于GH提供的支援金额，只需向GH支付年利率1.2%至2.2%左右的低廉租金即可。入住者最多可稳定居住30年。

*谁可以申请？：申请者为收入较低的京畿道居民和多文化家庭。首先，必须是居住在京畿道的无住房家庭成员。此外，还需满足以下三项条件之一：▲低保对象中的生活补助或医疗补助领取者..〈중략, 태국어 17면〉 파파야스토리

지자체별 지면 안내

헤드라인 1 경기도 2 수원 3~10 용인 11~13 구리 14~15 광주 16~18 양평 19 하남 20~21 광명 22~25 이천 26~27 평택 28~32

언어별 지면 안내

중국어 中文 1 베트남어(Vietnamese) Tiếng Việt 15, 21 러시아어 Русский 5, 23 태국어(Thai) ภาษาไทย 5, 17, 21 영어(English) 7, 17 〈인터넷에서 파파야스토리를 검색하세요. 파파야스토리는 중국어 中文, 베트남어 Tiếng Việt, 러시아어 Русский 태국어 ภาษาไทย 영어 English, 한국어 등 6개 언어로 서비스 합니다〉

섹션별 지면 안내

정책 Policy 2 생활정보 Information 3, 6, 25 나의 학습 My Study 13, 27, 30 이주배경청소년 2, 3, 4 외국인주민 5, 15 보건 Health 10, 16 여가 9 도서관 Library 2, 7, 14, 19 국제교류 4 기후보험 21, 23 주거 Residence 1, 17 복지 Welfare 7, 8 육아 25



경기도미래세대재단은 14일 경기도청소년수련원에서 이주배경 청소년 29명과 '미래세대 동행' 2회차 활동을 진행했다. '미래세대 동행'은 이주배경 청소년이 한국의 문화를 경험할 수 있도록 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사회공헌활동이다. 재단은 지난 4월 수원·안산·화성 3개 시 글로벌청소년센터와 이주배경 청소년 지원 협력 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6월에는 수원시 센터의 이주배경 청소년 31명과 1차 활동을 마쳤다. 2회차 활동에서 화성시 센터 소속 이주배경 청소년들은 함께 자전거를 타고 걸으며 대부도 섬마을을 둘러봤다. 또한 함께 안무를 만들고 배우는 과정에서 서로 소통하고, 아크릴 무드등과 조개 모빌 등 지역 특색이 담긴 소품을 제작하며 창작 활동을 체험했다.

경기도미래세대재단 김현삼 대표이사는 "청소년과 청년의 성장과 도전을 지원하는 것은 재단의 중요한 역할"이라며 "앞으로도 재단의 특성과 강점을 반영한 사회공헌활동을 지속적으로 발굴·추진해 미래세대에게 다양한 경험과 성장의 기회를 꾸준히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송하성 기자

"유보통합, 어른이 아닌 아이 중심으로"

최순자 경기도의원, 영유아 보육 관련 주요 현안 논의해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최순자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은 14일 경기도교육청 유보통합준비단(엄신옥 단장)과 경기형 유보통합 추진 방향과 영유아 정서·심리 발달 지원, 부모교육 참여 확대 등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

최순자 의원은 이날 "유보통합의 기준은 기관이나 부모의 편의가 아니라 아이의 발달과 행복이어야 한다"며 "아이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이 사랑받고 있다는 안정적인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맞벌이 가정의 돌봄 문제를 시설과 서비스 확대만으로 접근하기보다 기업과 연계한 유연근무제 등을 통해 부모가 직접 아이와 함께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또한 긴급 돌봄이 필요한 가정에는 지역 내 양육 경험이 있는 주민 등이 아이를 가까운 곳에서 따뜻하게 돌볼 수 있는 '이웃돌봄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최 의원은 "단순히 아이를 맡아주는 돌봄이 아니라 신뢰와 정서적 관계가 형성되는 돌봄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영유아의 정서·심리 발달 지원과 관련해서는 부모상담, 아동의 정서검사와 치료, 교사 코칭 등을 연계하고 있는 경기도교육청의 사업을 점검하며, 향후 보다 체계적인 지원 모델을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다.

최 의원은 특히 "부모교육이나 기존 돌봄정책에 참여하지 못하는 가정의 아이들이 오히려 더 큰 지원이 필요한 경우가 있다"며 "정책을 이용하는 사람만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사각지대에 있는 아이를 먼저 찾아가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최 의원은 "경기형 유보통합이 단순히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체계를 통합하는 데 그쳐서는 안 된다"며 "기업, 가정, 지역사회가 함께 아이를 키우고, 아이 한 명 한 명의 마음과 관계까지 살피는 진정한 아이 중심 정책'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밝혔다. 송하성 기자

경기도, 책 읽고 체험하는 '독서캠프' 11월까지 운영



경기도가 도서관에서 책과 다양한 체험을 함께 즐길 수 있는 '독서캠프'를 오는 11월까지 도내 11개 도서관에서 운영한다.

독서캠프는 독서와 체험을 결합한 참여형 프로그램으로, 도서관별 특성과 운영 여건에 맞춰 다양한 방식으로 진행된다. 참가자들은 독서 공간을 새롭게 활용한 몰입형 독서와 창작·놀이를 체험할 수 있다.

지난 7월 31일부터 8월 10일까지 안양·여주·양주·수원·안산의 5개 도서관에서는 도서관 강당과 자료실 등 여러 공간을 활용한 독서캠프가 열렸다. 특히 지난 10일 안산시 와동교육도서관에서는 텐트 몰입독서를 비롯해 경찰과 도둑 놀이, 페이스페인팅, 필사 등 하루 동안 독서와 체험을 함께 즐기는 전일형 프로그램이 운영됐다.

독서캠프는 이달에도 이어진다. 13일 광명시 하안도서관에서는 불을 끈 공간에서 작은 조명만으로 책을 읽는 '암흑독서', 17일 용인시 중앙도서관에서는 볼펜을 직접 조립하고 만년필을 체험하는 '조립된 취향·수집된 문장'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이후 9월 파주시 문산도서관, 10월 가평군 한석봉도서관과 화성시립다원이음터도서관, 11월 성남시 복정도서관에서도 독서캠프가 순차적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참여 일정과 신청 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시군 도서관과 경기도서관 누리집(library.kr) 평생독서 메뉴의 '경기도 독서문화진흥'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

윤명희 경기도서관장은 "독서캠프는 도서관이 조용히 책만 읽는 공간이라는 고정관념을 넘어 책과 놀이, 체험이 어우러지는 문화공간임을 보여주는 프로그램"이라며 "도민들이 도서관을 더욱 친숙하게 찾을 수 있도록 다양한 독서문화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서관은 도서관 독서캠프에 앞서 지난 7월 26일과 27일 무박 2일간 '잠들지 않는 경기도서관' 행사를 열었다. 행사에 참여한 도민 100명은 밤새 도서관에서 책을 읽고, 평소 도서관에서는 하기 어려운 다양한 체험활동을 즐기는 등 새로운 방식으로 도서관을 즐겼다.

송하성 기자

'50명의 수원 어린이가 채운 여름의 반짝이는 페이지'

수원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초등학생 여름캠프 '우리들의 여름 페이지' 성료



수원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지난 8월 4일부터 6일까지 2박 3일간 안성 너리굴 문화마을에서 관내 다문화가정 초등학생 50명을 대상으로 2026년 초등 여름캠프 「우·여·페(우리들의 여름 페이지)」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

이번 캠프는 '우리가 기록하는 2026년 여름의 기록물'을 슬로건으로, 아이들이 자연 속에서 다양한 체험활동을 경험하며 서로를 이해하고 협력하고 건강한 사회성과 자신감을 키울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언어와 문화적 배경이 다른 아이들이 함께 어울릴 수 있도록 몸으로 소통하는 협동 활동과 참여 중심 프로그램으로 운영했다. 첫째 날에는 입소식과 안전교육을 시작으로 네트어드벤처와 물놀이, 레크리에이션을 진행하며 친구들과 친밀감을 형성하는 시간을 가졌다. 둘째 날에는 자연 속 미션활동과 명랑운동회, 장기자랑을 통해 협동심과 성취감을 나누었으며, 마지막 날에는 공방체험과 아카이브북 완성 활동, 퇴소식을 끝으로 2박 3일간의 여정을 마무리했다.

이번 캠프의 가장 큰 특징은 참여 어린이들이 직접 완성한 「우리들의 여름 페이지」 아카이브북이다.

아이들은 캠프 기간 촬영한 폴라로이드 사진과 손편지, 스티커 등을 활용해 자신만의 여름 이야기를 기록하며 성장의 순간을 한 권의 책으로 담아냈다. 또한 캠프 테마송 '우여페'를 함께 부르고 율동을 배우며 서로의 추억을 공유하고 공동체 의식을 키웠다.

학부모들은 '우리 아이에게 보내는 응원 메시지' 영상을 제작·상영해 가족의 사랑과 응원을 전했으며, 퇴소식에서는 아이들이 완성한 아카이브북을 함께 나누었다.

수원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관계자는 "이번 캠프가 아이들에게 새로운 친구를 만나고 서로의 다름을 이해하며 자신감을 키우는 소중한 시간이 되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다문화가정 아동들이 지역사회 안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체험과 배움, 돌봄이 함께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7월 28~29일에는 중·고등학생 30명이 참여한 가운데 '우리들의 여름 페이지' 캠프를 진행했다.

센터는 앞으로도 다문화가족 아동·청소년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문화·체험·교육을 연계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지속 운영하며 지역사회 통합과 건강한 성장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지은 기자

재활용품 가져오면 종량제봉투로 교환...'이동형 스마트 자원순환센터' 시범 운영

수원특례시(시장 이재준)가 8월 28일까지 고색동 일원에서 '이동형 스마트 자원순환센터'를 시범 운영한다.

이동형 스마트 자원순환센터는 수원시 '탄소중립 그린도시 조성 사업'의 하나로, 수거 차량이 단독·저층주택 지역을 찾아가 재활용품을 수거하고 종량제봉투로 교환해 주는 시범 사업이다.

8월 5일부터 28일까지 매주 수·금요일 정오부터 오후 6시까지 고색동 주거지 인근에서 운영한다. 차량이 ▲태산2차아파트 후문 앞(정오~오후 2시) ▲고산로5번길 6(오후 2~4시) ▲고색역 공영주차장 맞은편(오후 4~6시) 등 3개 지점을 순회하며 재활용품을 수거한다.

수거 품목은 투명 페트병, 캔(알루미늄·철), 종이팩, 폐건전지다. 기준을 충족한 재활용품은 종량제봉투(10L)로 교환해 준다. 투명 페트병과 캔은 합산해 10개 이상, 종이팩은 1kg(약 35개), 폐건전지는 0.5kg(약 20개) 이상 가져오면 종량제봉투(10L) 1매로 교환할 수 있다. 1인당 1회 최대 3매까지 지급한다. 재활용품을 수거할 때 간단한 설문조사도 한다.

재활용품마다 배출 방법이 다르다. 투명 페트병은 내용물을 깨끗이 헹군 뒤 라벨을 제거하고 납작하게 눌러야 한다. 캔은 내용물을 비우고 헹구고, 종이팩은 씻어 펼친 뒤 말려야 한다. 폐건전지는 한곳에 모아 배출해야 한다.

수원시는 이번 시범 운영으로 고품질 재활용품 수거율을 높이고, 탄소 감축 효과를 얻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시민 의견을 수렴해 스마트 자원순환센터 운영 사업의 기초 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다.

수원시 관계자는 "시민들이 더 쉽고 편리하게 재활용품을 분리배출할 수 있도록 이동형 스마트 자원순환센터를 마련했다"며 "시범 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배출자 보상 등 수거 구조를 개선해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고, 자원순환 문화를 확산하겠다"고 말했다.

이지은 기자



이주배경청소년, 재능 기부 공연 펼쳐

수원시글로벌청소년드림센터, 동아리 'GC기타연주부'

수원시글로벌청소년드림센터는 지난 8월 7일 13세부터 18세까지 이주배경청소년과 비이주배경청소년 6명이 참여한 가운데 어르신들을 위한 기타연주 재능기부 공연을 진행했다.

이번 재능기부 공연은 청소년들이 자신의 재능과 역량을 지역사회와 나누며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 참여하는 기회가 됐다. 청소년들은 광교 소재 요양병원에 방문해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바람이 불어오는 곳', '사랑하는 마음', '18세 순이', '내 나이가 어때서' 등 총 4곡을 연주했다. 익숙한 노래의 선율이 울려 퍼지자 어르신들은 박수와 미소로 청소년들의 공연을 응원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특히 이번 공연에서는 청소년들의 지역사회 나눔 활동을 응원하기 위해 유튜버 '조폭여친'이 특별 제작한 티셔츠를 후원받았다. 청소년들은 티셔츠를 입고 공연에 참여하며 자신들의 재능을 나누는 동시에 지역사회의 응원과 관심을 직접 경험했다.

이번 공연에 참여한 한 청소년은 "처음에는 어르신들 앞에서 연주하는 것이 긴장됐지만, 박수를 쳐주시고 즐거워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뿌듯했다"며 "친구들과 함께 연습한 기타 연주로 다른 사람에게 기쁨을 줄 수 있어서 좋았다"고 소감을 전했다.

통합동아리활동 'GC기타연주부'는 13세~24세 이주·비이주배경청소년을 대상으로 주 2회(매주 화, 목), 오후 5시~7시 활동이 진행되고 있다. 함께 참여 하고 싶은 청소년은 센터 홈페이지(www.swglobalyouth.com)내 On-tact 상담 또는 전화 070-4125-3312로 문의하면 된다. 송하성 기자

복날 이주배경청소년 가정에 따뜻한 나눔

수원시글로벌청소년드림센터, 지역사회와 치킨 후원 전달

수원시글로벌청소년드림센터는 최근 이주배경청소년과 가족들이 따뜻한 식사를 나누며 건강한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센터 사례관리 대상 가구 중 복합적인 어려움으로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한 8가구에게 치킨 10마리를 지원했다.

센터는 이주배경청소년이 건강하게 성장하고 지역사회 안에서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다양한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 맞춤형서비스(사례관리)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이 사업은 경제적 어려움, 가족관계, 정서·심리적 어려움, 교육 및 진로, 주거·생활환경 등 여러 영역에서 복합적인 어려움을 겪는 이주배경청소년과 가족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필요한 자원과 서비스를 연계하여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가정의 안정을 지원하고 있다. 수원시휴먼서비스센터와 진미통닭의 후원으로 마련된 이번 지원은 단순한 물품 전달을 넘어 사례관리 과정에서 파악된 대상 가정의 생활 여건과 욕구를 고려하여 일상생활에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센터 관계자는 "복날을 맞아 전달된 작은 나눔이 이주배경청소년과 가족들에게 따뜻한 위로와 응원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사례관리를 통해 청소년과 가족이 처한 다양한 어려움을 세심하게 살피고, 필요한 자원을 지역사회와 함께 연결해 건강한 성장을 돕겠다."고 전했다.

이어 "이주배경청소년이 지역사회에서 소외되지 않고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관심과 나눔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센터는 앞으로도 이주배경청소년과 가족의 복합적인 어려움에 대응하고, 필요한 자원을 적극적으로 발굴·연계하여 청소년과 가족이 지역사회 안에서 안정적으로 생활하고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사례관리와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031-247-1324 송하성 기자

수원 청소년들, 미국 피닉스 방문 18일간 청소년대사 국제교류 진행

수원시국제교류센터는 국제자매도시인 미국 애리조나주 피닉스시에서 '2026 수원-피닉스 청소년대사 교류프로그램(YAEP)'을 진행했다.

수원시 고등학생 2명이 청소년대사로 참가해 피닉스시와 피닉스시의 자매도시에서 온 9개국 청소년대사 34명과 교류했다. 참가자들은 피닉스 청소년 가정에서 홈스테이를 하며 현지의 일상과 생활문화를 직접 경험했다.

수원 청소년대사들은 9개국 참가자들이 함께한 '전 세계 테이블' 행사에서 수원의 역사·문화·관광자원을 소개했다. 특히 '2026~2027 수원 방문의 해'를 알리며 세계 각국 청소년들에게 수원의 매력과 관광도시로서의 가치를 홍보했다. 현지에서는 ▲피닉스시장과의 만남 ▲미국프로야구 애리조나 다이아몬드백스 경기 관람 ▲그랜드캐니언 등 북부 애리조나 탐방 ▲미국 고등학교 무도회와 전통문화 체험 ▲피닉스 지역 탐방 등에 참여했다.

청소년들은 세계 각국 참가자들과 일정을 함께하며 서로의 문화와 생활방식을 이해하고, 다양한 배경을 지닌 또래들과 소통하며 국제적 시야와 글로벌 역량을 넓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수원시와 피닉스시 청소년이 서로의 가정에서 생활하는 상호 방문 방식으로 진행됐다. 앞서 피닉스 청소년대사 2명은 6월 18일부터 7월 2일까지 수원에서 홈스테이했다. 이지은 기자

수원시대표단, 일본 아사히카와시 여름축제 방문해...우호 교류 강화

수원특례시 대표단이 7월 30일부터 8월 2일까지 일본 자매도시 아사히카와시 초청으로 '2026 아사히카와 여름축제'에 방문했다.

김은주 수원시 여성가족국장 등 수원시 대표단은 31일 아사히카와시청에서 아사히카와시장 등 관계자와 만나 양 시 교류사업을 공유하고, 우호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어 아사히카와시와 일한우호친선협회가 주관한 환영만찬과 2026 아사히카와 여름축제 개막식에 참석하고, 아사히야마 동물원과 신청사 등 아사히카와시 주요시설도 둘러보며 공식 일정을 소화했다. 김은주 국장은 "수원시와 아사히카와시는 1989년 자매결연 이후 대표단 교류, 공무원 연수, 스포츠·청소년 교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 우정을 이어오고 있다"며 "앞으로도 미래세대가 함께하는 교류를 확대해 양 도시 간 우호 관계를 더욱 발전시키겠다"고 말했다. 이어 "수원방문의 해를 맞아 다양한 관광 콘텐츠를 준비하고 있으니 많은 아사히카와 시민들이 찾아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지은 기자

Кёнгидо проведёт полное обследование условий проживания уязвимых групп мигрантов 경기도, 주거취약 이주민 전수조사 실시

По распоряжению губернатора провинции Кёнгидо Чу Ми Э корейская провинция Кёнгидо проведёт полное обследование условий проживания мигрантов, проживающих в ненадлежащих для жилья помещениях, таких как теплицы и контейнеры, которые особенно уязвимы перед сильной жарой и пожарами. Эта мера принята после того, как на фоне рекордной жары в последнее время возникли вопросы относительно безопасности людей, проживающих в теплицах, используемых в качестве жилья.

12 июля губернатор Кёнгидо Чу Ми Э посетила место проживания людей в жилой теплице в Кванмёне и дала распоряжение: «Ни один житель Кёнгидо не должен находиться в зоне, где он не защищён от стихийных бедствий и угроз безопасности.

Необходимо тщательно проверить условия жизни мигрантов, уязвимых перед такими бедствиями, как сильная жара, и оперативно принять необходимые меры защиты». В связи с этим с 24 июля по 14 августа, в течение трёх недель, Кёнгидо проведёт полное обследование 4 420 мест проживания иностранных работников, занятых в сельском хозяйстве, животноводстве и рыболовстве (по системе разрешений на трудоустройство и системе сезонных работников), в 31 городе и уезде провинции.

В ходе обследования планируется проверить прежде всего ненадлежащие жилые помещения, такие как теплицы, контейнеры и сборные конструкции, а также выяснить, соответствуют ли места проживания требованиям законодательства и имеются ли необходимые условия, включая туалеты.

В отношении мигрантов, проживающих в неудовлетворительных условиях, по результатам обследования планируется связать их с программой «Климатическая страховка Кёнгидо» и социальными программами, чтобы оказать экстренную помощь и улучшить условия проживания. В отношении работодателей, предоставивших жильё в виде временных построек без прохождения предусмотренных законом процедур, например без подачи заявления на изменение назначения сельскохозяйственных земель, будут приняты административные меры в сотрудничестве с городами и уездами.

Если будут выявлены жилые помещения, в которых с точки зрения безопасности невозможно продолжать проживание, совместно с городами и уездами будут приняты экстренные меры защиты, включая создание временного жилья. Также планируется связать эту работу с уже действующими программами поддержки мигрантов в сфере медицины, социальной помощи и консультирования, чтобы создать комплексную систему поддержки, направленную на стабилизацию жизни мигрантов, проживающих в ненадлежащих условиях, и их адаптацию в местном сообществе.

Кроме того, отдельно от гуманитарной защиты, в отношении действий, связанных со злоупотреблением системой или нарушающих порядок в местном сообществе, Кёнгидо планирует сотрудничать с соответствующими органами и принимать меры в соответствии с законом и установленными принципами.

Губернатор Кёнгидо Чу Ми Э заявила: «Такие стихийные бедствия, как сильная жара, представляют ещё большую опасность для жителей, находящихся в уязвимых жилищных условиях. Мы будем тщательно следить за ситуацией, чтобы мигранты могли жить в более безопасных условиях, и продолжим создавать систему безопасности для защиты людей, наиболее уязвимых перед стихийными бедствиями».

〈중략, 한글 기사 15면, 인터넷에서 파파야스토리를 검색하세요, 더 다양하고 많은 정보를 만날 수 있어요〉 파파야스토리

จังหวัดคยองกี, สำรวจผู้ย้ายถิ่นที่อยู่ในสภาพที่อยู่อาศัยเปราะบางทั่วทั้งพื้นที่... เพิ่มการช่วยเหลืออย่างเต็มที่, พร้อมดำเนินการอย่างเข้มงวด ต่อการกระทำผิดกฎหมาย

จังหวัดคยองกีได้ดำเนินการสำรวจผู้ย้ายถิ่นที่อาศัยอยู่ในที่พักอาศัยกลุ่มเปราะบาง เช่น โรงเรือนพลาสติกและตู้คอนเทนเนอร์ ซึ่งเสี่ยงต่อ คลื่นความร้อนและอัคคีภัย ตามคำสั่งของผู้ว่าราชการจังหวัดคยองกี ชู มีแอ โดยเป็นมาตรการที่เกิดขึ้นหลังจากมีการหยิบยกประเด็น ความปลอดภัยของผู้ที่อาศัยอยู่ในโรงเรือนพลาสติกเพื่อเป็นที่พักอาศัย ท่ามกลางสภาพอากาศร้อนจัดเป็นประวัติการณ์

ก่อนหน้านี้ เมื่อวันที่ 12 กรกฎาคม ผู้ว่าราชการจังหวัดคยองกี ชู มีแอ ได้ลงพื้นที่ตรวจเยี่ยมโรงเรือนพลาสติกที่ใช้เป็นที่อยู่อาศัยในเมือง กวางมยอง และกล่าวว่า "ประชาชนทุกคนที่อาศัยอยู่ในจังหวัดคยองกีจะต้องไม่ถูกปล่อยให้อยู่ในพื้นที่ที่ขาดการคุ้มครองด้านภัยพิบัติ และความปลอดภัย" พร้อมสั่งการให้ "ตรวจสอบสภาพความเป็นอยู่ของผู้ย้ายถิ่นที่มีความเสี่ยงต่อภัยพิบัติ เช่น คลื่นความร้อนอย่างละเอียด และเร่งจัดเตรียมมาตรการคุ้มครองที่จำเป็นโดยเร็วที่สุด"

ด้วยเหตุนี้ จังหวัดคยองกีจะดำเนินการสำรวจอย่างครอบคลุมเป็นเวลา 3 สัปดาห์ ระหว่างวันที่ 24 กรกฎาคม ถึงวันที่ 14 สิงหาคม โดยครอบคลุมที่พักอาศัย 4,420 แห่ง ของแรงงานย้ายถิ่นในภาคเกษตร ปศุสัตว์ และประมง (ผู้พำนักภายใต้ ระบบใบอนุญาตการจ้างงาน และโครงการแรงงานตามฤดูกาล) ใน 31 เมืองและอำเภอ ของจังหวัด เพื่อสำรวจสภาพความเป็นอยู่ของผู้อยู่อาศัย

การสำรวจครั้งนี้จะมุ่งเน้นไปที่ที่พักอาศัยกลุ่มเปราะบาง เช่น โรงเรือนพลาสติก, ตู้คอนเทนเนอร์ช, และอาคารสำเร็จรูป โดยจะตรวจสอบว่า ที่พักดังกล่าวถูกต้องตามกฎหมายหรือไม่ รวมถึงมีสิ่งอำนวยความสะดวกขั้นพื้นฐาน เช่น ห้องน้ำ ครบถ้วนหรือไม่ เพื่อประเมินความ เหมาะสมของสภาพการอยู่อาศัย

จากผลการสำรวจ สำหรับผู้ย้ายถิ่นที่อาศัยอยู่ในสภาพแวดล้อมที่อยู่อาศัยไม่เหมาะสม จังหวัดคยองกีจะเชื่อมโยงกับประกันภัยสภาพ ภูมิอากาศจังหวัดคยองกี และโครงการสวัสดิการต่างๆ เพื่อสนับสนุนการช่วยเหลือฉุกเฉินและการปรับปรุงสภาพความเป็นอยู่ ส่วนผู้ประกอบ การที่จัดหาที่พักให้แรงงานในอาคารชั่วคราวที่ไม่ได้ดำเนินการตามขั้นตอนทางกฎหมาย เช่น การขออนุญาตเปลี่ยนพื้นที่เกษตรกรรม จังหวัดจะหารือร่วมกับเมืองและอำเภอที่เกี่ยวข้อง เพื่อดำเนินการตามขั้นตอนทางปกครองต่อไป

หากพบว่ามีที่พักอาศัยที่ไม่สามารถอยู่อาศัยต่อได้อย่างปลอดภัย จังหวัดคยองกีจะดำเนินมาตรการคุ้มครองฉุกเฉิน เช่น ร่วมมือกับเมืองและ อำเภอที่เกี่ยวข้องเพื่อจัดเตรียมสถานที่พักชั่วคราวให้แก่ผู้อยู่อาศัย นอกจากนี้ จังหวัดยังมีแผนจัดตั้งระบบสนับสนุนแบบบูรณาการ โดยเชื่อมโยงกับโครงการช่วยเหลือผู้ย้ายถิ่นที่มีอยู่เดิม เช่น การให้บริการทางการแพทย์ สวัสดิการ และการให้คำปรึกษา เพื่อช่วยให้ผู้ย้ายถิ่น ที่อยู่ในสภาพที่อยู่อาศัยเปราะบางมีความมั่นคงในการดำรงชีวิตและสามารถตั้งถิ่นฐานในชุมชนท้องถิ่นได้อย่างราบรื่น

〈중략, 한글 기사 15면〉 파파야스토리

QR코드 스캔 후 파파야스토리 홈페이지 우측 상단의 국기를 선택해 언어를 변경하세요.

수원특례시

수원을 새롭게 시민을 빛나게

수원새빛돌봄

임신부 신청자 모집

태교 프로그램 이용 및 가사서비스 20만원 지원

2026. 8. 13.(목) ~ 모집 마감 시
선착순 모집

중위소득 150% 이하 임신부 가구<태아포함>
(모집인원 25명)

(사)수원YWCA 온라인(e-mail) 접수
마감여부 유선확인 check!

수원시청 홈페이지-수원소식-시정소식



사단법인 수원YWCA

프로그램	세부내용	플라워 클래스
AI활용 교육	AI활용 자장가 만들기, 육아정보 활용	
마크라메 공예	마크라메 월행잉·벽장식 만들기	
플라워 클래스	생화 꽃바구니, 하바플라리움 무드등 만들기	

기타 자세한 문의는? ☎031-252-5111 ✉suwnywca@hanmail.net 수원시 장안구 정자천로 134번길 34

꼭 읽어주세요!!
⊙ 자세한 내용은 모집 안내문 바로가기(QR코드)
⊙ 프로그램(세부 일정 등)기관 별도 문의



탄소 탄소는 줄이고 실천은 늘리고
중립수원

자원순환으로 만드는 깨끗한 고색

자원순환센터가 찾아갑니다

"분리수거 인식 제고"를 위한
이동형 스마트 자원순환센터 운영 실증 연구 안내

운영 기간
2026년 8월 (1개월 간)

운영 요일
매주 수요일·금요일

수거 품목

투명 PET (음료·생수병)	캔 (알루미늄·철)	종이팩 (우유팩)	폐건전지 (종류 무관)
비우고 라벨제거	비우고 행구기	펼치고 말리기	포장지 제거
(PET · 캔) 품목 상관없이 10개 이상		1kg(35개)	0.5kg(20개)

보상 리워드
종량제 봉투 10L 1매
회당 최대 3매 제한
※리워드 수령 시 간단한 설문조사가 진행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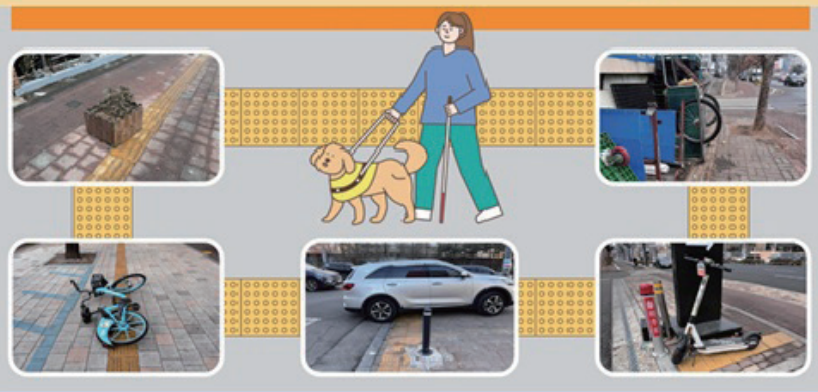
찾아가는 순환 노선
지점 별 2시간 정차
시간 맞추어 방문해주세요
※시간대 별로 지점이 상이합니다.
1. 태산2차아파트 후문 앞
2. 고산로 5번길 6
3. 고색역 공영주차장 맞은편

운행 위치 안내


수원특례시 SRI수원시정연구원
문의처 : 수원시정연구원(031-220-8081)

关于残障人专用盲道妨碍损坏行为集中整治及宣传引导通知

依据《交通弱势群体便利促进法》第11条
违规者可处50万韩元以下罚款



宣传劝导期间：～2026年12月31日
整治地点：道路及客运设施内交通弱势群体（残障人士）人行道（盲道）
整治对象：在盲道上堆放物品、搭建构筑物等妨碍或损坏盲道正常使用行为
- 涉及物品：车辆、户外广告牌、路边堆放物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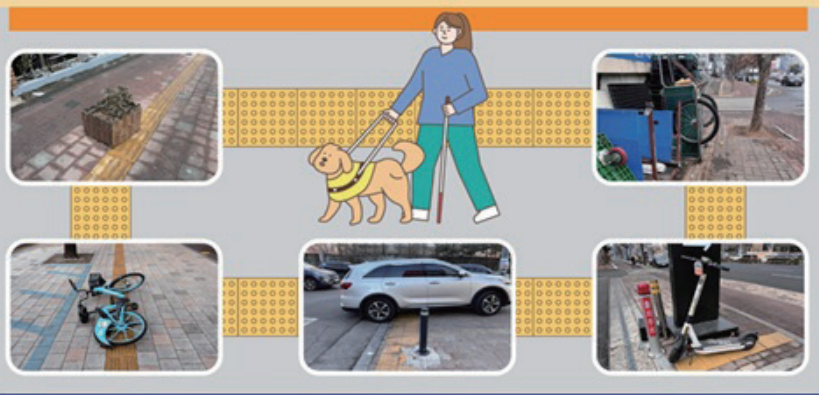
【适用《水原市交通弱势群体便利促进法》行政罚款处罚指引】
◆ 共享电动滑板车、自行车将按照相关规定实施拖移并收取拖移费用

咨　询：水原特别市 交通政策科 ☎ 031-5191-2511

Thông báo tập trung kiểm tra và Xử phạt

Hành vi làm hỏng·cản trở lối đi (gạch xúc giác) của người khuyết tật

Căn cứ điều 11 『Luật Giao thông Hỗ trợ người yếu thế』
Xử phạt dưới 500.000Won



Thời gian kiểm tra : ～Đến 31/12/2026
Khu vực kiểm tra : Đường bộ của người khuyết tật, đường bộ và bên trong các cơ sở vận tải hành khách
Đối tượng kiểm tra : Người có hành vi làm hỏng hoặc để đồ vật trồng chất, đâu xe trên lối đi bộ của người khuyết tật
- Vật gây cản trở : Đặt hàng hóa, biển quảng cáo ngoài trời, xe Ô tô v.v..
【Xử phạt theo luật giao thông hỗ trợ người yếu thế TP.Suwwon】
◆ Tình huống xe điện mini, xe đạp phạt theo cách khác như phạt phí kéo xe
Liên hệ : Phòng Chính sách Giao thông TP.Suwon ☎ 031-5191-2511

Suwon Special City expands 'Elementary School Lower Grades Commute Companion Care Service'



Suwon Special City (Mayor Lee Jae-jun) is expanding the 'Elementary School Lower Grades Commute Companion Care Service', a resident-proposed service under Suwon Saebit Care. Accordingly, Suwon City is accepting pre-applications for users during the summer vacation and the second semester. Multicultural families and refugees can also apply, so let's take a closer look at the details below.

From June 8, Suwon City will expand the eligibility from existing elementary school grades 1-2 to grades 1-3. The maximum number of usage days has been increased from 30 days to 60 days, and the basic allocated points have also been expanded from the existing 507,000 won to within 1 million won per year. The determined cost for one service session is 16,900 won (within 1 hour). The companion care service can be used for free for up to 60 days within the 1 million won limit.

Eligible applicants include Suwon citizens with children in elementary school grades 1-3 who need commute companion care, whose household income is 150% or less of the median income (others are self-funded), as well as multicultural families and refugees. The service supports travel to and from schools, care facilities, and private academies, and dual-income families can also apply. Service applications can be made at the local administrative welfare center of the registered address and are accepted on a first-come, first-served basis.

A Suwon City official stated, "The commute companion care service is designed to fill care gaps for guardians and help children commute safely to and from school. We will expand promotion so that eligible families residing in Suwon City, regardless of nationality, can easily utilize the service." Inquiries: Care Policy Division, Integrated Care Team 031-5191-2746

PapayaStory

광교홍재도서관, '길 위의 인문학' '지혜학교' 프로그램 참가자 모집

수원시 광교홍재도서관이 문화체육관광부 지원사업인 '2026 길 위의 인문학(1차)'과 '2026 지혜학교' 프로그램 참가자를 모집한다.

'길 위의 인문학'과 '지혜학교'는 시민들이 문학·철학·음악 등 다양한 인문학 콘텐츠를 접하며 삶을 성찰하고, 인문학적 소양을 기를 수 있도록 마련한 프로그램이다.

길 위의 인문학 1차 과정은 '시경, 시로 읽는 인생 사계'를 주제로 8월 19일부터 9월 30일까지 매주 수요일 오전 10~12시 광교홍재도서관 강당에서 열린다. 고전인문학자 우응순 강사가 '시경'을 통해 청춘·사랑·이별·노년 등 인생의 다양한 모습을 수강생과 함께 살펴본다.

지혜학교는 '음악으로 읽는 괴테'를 주제로 8월 26일부터 11월 18일까지 매주 수요일 오후 2~5시에 진행한다. 서울대학교 강사이자 성악가인 지나 오가 괴테 문학이 오페라와 가곡으로 확장된 과정을 다양한 작품과 함께 소개한다. 9월 30일은 휴강한다.

각 프로그램은 성인 40명을 선착순으로 모집한다. 8월 4일 오전 10시부터 광교홍재도서관 홈페이지와 수원시도서관 모바일 웹에서 신청할 수 있다. 한편 길 위의 인문학 2차 과정은 '그리스 비극, 인간과 역사에 바치는 애도의 노래'를 주제로 10월 7일부터 운영한다. 참가 신청은 9월 15일 오전 10시부터 받는다.

이지은 기자

수원새빛돌봄(누구나) 문턱 낮춰 시민 부담 줄인다...시민에 본인부담금 한시지원

수원특례시(시장 이재준)가 돌봄서비스 이용에 부담을 느끼는 시민을 위해 12월 31일까지 기준중위소득 120% 초과, 150% 이하인 시민에게 수원새빛돌봄(누구나) 본인부담금을 한시 지원한다.

수원새빛돌봄(누구나) 서비스 제공 적격 판단 기준을 충족하면서 기준중위소득 120% 초과 150% 이하인 시민이 대상이다. 8월 13일 이후 신규 신청자부터 적용하며, 220명 내외를 지원할 예정이다.

현재 수원새빛돌봄(누구나)은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시민에게 서비스 비용 전액을 지원한다. 기준중위소득 120% 초과~150% 이하 시민은 서비스 비용의 50%를 지원받고, 나머지 50%를 본인이 부담한다.

한시 지원 기간에는 기준중위소득 120% 초과~150% 이하 시민이 부담하던 비용까지 수원시가 추가로 지원한다. 지원받는 시민은 1인당 연간 이용한도 150만 원 범위에서 본인 부담 없이 수원새빛돌봄(누구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수원새빛돌봄(누구나)은 돌봄이 필요한 시민에게 생활돌봄·동행돌봄·주거안전·식사 지원·일시보호·재활돌봄·심리상담 등 맞춤형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수원시 관계자는 "이번 본인부담금 한시 지원이 돌봄이 필요하지만 비용 부담으로 서비스 이용을 망설였던 시민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돌봄 접근성을 높이고 시민 생활 안정과 민생경제 회복을 지원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수원새빛돌봄 임신부 참여자 모집

수원특례시(시장 이재준)가 '2026 수원새빛돌봄 임신부 돌봄공동체 조성 사업' 참여자 25명을 8월 13일부터 모집한다.

수원새빛돌봄 임신부 돌봄공동체 조성 사업은 임신·출산 친화적인 분위기를 조성하고, 임신부 간 교류와 돌봄 네트워크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사단법인 수원 와이더블유시에이(YWCA)와 협업해 추진한다.

지원 대상은 수원시에 거주하는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임신부 25명이다. 임신부에게는 가사서비스 이용 비용 20만 원을 포함해 1인당 최대 40만 원을 지원한다.

또 ▲인공지능(AI) 활용 교육 ▲마크라메 공예 ▲플라워 클래스 등 정서적 안정을 돕고 참가자 간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운영된다.

수원시 관계자는 "가사서비스와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해 임신부의 부담을 덜어주고, 정서적으로 지지받을 수 있는 교류를 지원할 것"이라며 "지역사회가 함께 임신부를 돌보고 응원하는 돌봄공동체가 형성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031-5191-2363

이지은 기자

도움이 필요할 땐,

수원 누구나 새빛돌봄

연 150만원 돌봄서비스 지원!

중위소득 120% 이하 (1인 가구 약 307만원 이하), 국가유공자
※ 중위소득 120%초과~150%이하 50%지원, 중위소득 150% 초과자 자부담

생활돌봄	동행돌봄	주거안전	식사지원	일시보호	재활돌봄	심리상담	방문의료
• 신체활동 지원 • 가사활동 지원	• 병원 동행 • 일상생활업무 동행	• 소모품교체/부분수리 • 대청소 • 소독·방역	• 일반식 제공 • 죽식 제공	• 단기 보호 • 반려동물 일시 보호	• 맞춤형 운동재활	• 성인 상담 • 아동·청소년 상담 • 중독관리 상담	• 본인부담금 지원

혼자 거동이 어렵고!
가족에게 도움받기 힘든!
기존 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는!

수원시민 누구나!!
「긴급복지지원법 시행령」에 근거한 외국인 (결혼이민자 등)

수원특례시

신청 · 수원시 동 행정복지센터
· 새빛톡톡 모바일 앱

문의 · 수원시 휴먼콜센터
1899-3300

수원특례시

수원을 새롭게 시민을 빛나게

수원새빛돌봄 초등 저학년(1~3학년) 등하교 동행돌봄 서비스

신청기간	사업내용	신청방법
26.6.8.(월) ~ 선착순 마감	학교·학원·돌봄기관 이동 시 동행서비스 제공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학교뿐만 아니라 학원, 돌봄기관 등하원도 동행 가능



수원특례시

수원을 새롭게 시민을 빛나게

수원 누구나 새빛돌봄

본인부담 한시지원!



지원기간 2026. 8월~12월(5개월)

지원대상 중위소득 120%초과~150%이하 가구 대상
(1인가구 약 307만원 초과~ 약 384만원 이하)

지원내용 수원새빛돌봄(누구나) 서비스
본인부담금 50% ▶ 본인부담금 0원

신청방법 ·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 새빛톡톡 온라인 신청
문의 수원시 휴먼콜센터 1899-3300



- 혼자 거동이 어렵고!
- 가족에게 도움받기 힘든!
- 기존 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는!

수원시민 누구나!!
「긴급복지지원법 시행령」에 근거한 외국인 포함



수원새빛돌봄(누구나) 서비스

생활돌봄	동행돌봄	주거안전	식사지원	일시보호	재활돌봄	심리상담
• 신체활동 지원 • 가사활동 지원	• 병원 동행 • 일상생활업무 동행	• 소모품교체/부분수리 • 대청소 • 소독·방역	• 일반식 제공 • 죽식 제공	• 단기 보호 • 반려동물 일시 보호	• 맞춤형 운동재활	• 성인 상담 • 아동·청소년 상담 • 중독관리 상담

연 150만원 내가 받을 수 있는

수원새빛돌봄(누구나) 서비스

수원 새빛돌봄 누구나

생활돌봄

신체활동 지원	1시간	25,320원
가사활동 지원	1시간	25,320원

동행돌봄

병원 동행	1시간	25,260원
일상생활업무 동행	1시간	25,260원

주거안전

소모품교체/부분수리	1시간	25,260원
대청소		상담 후 결정
소독	1회	100,000원

식사지원

일반식·죽식	1식	11,000원

재활돌봄

맞춤형 운동재활	1시간	60,000원

일시보호

단기 보호	1일	74,060원
반려동물 일시보호	1박	소형견 35,000원
		중형견 40,000원
		대형견 50,000원

※ 추가비용 2만원(이송, 입질)

심리상담

아동·청소년 상담	1시간	60,000원
성인·중독관리 상담	1시간	80,000원

※ 상기 금액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서비스 절차

1. **신청 접수** — 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새빛톡톡 앱
2. **현장방문** — 돌봄필요도 평가 및 돌봄대상 여부 판정
3. **자격확인 및 돌봄계획 수립** — 소득기준 등 자격확인 및 돌봄계획 수립
4. **서비스 연계, 제공** — 제공기관 연결, 돌봄서비스 제공
5. **서비스 평가 및 사후관리** — 서비스 종결 및 모니터링, 대상자 사후관리 연계

복지사각지대 위기가구를 꼭! 꼭! 알려주세요

- **건강 이상, 생활고**가 있어 보여요.
- 집에서 **악취**가 나고 **쓰레기**가 쌓여 있어요.
- **단전, 단수, 단가스** 안내문이 붙여져 있어요.
- 보호자가 **갑작스러운 사망, 가출** 등을 했다고 해요.
- **온둔형 외톨이**로 보이는 사람이 있어요.
- **체납 고지서** 등 우편물이 쌓여 있어요.
- **장기 투숙**하시는 분이 있어요.
- 월세를 **3개월 이상 체납** 했어요.

외국인 인플루언서 홍보, 글로벌 관광 도시 수원의 매력을 세계에 알린다!

‘수원 For U’…2026-2027 수원 방문의 해, 새빛 글로벌 프렌즈 등 외국인주민 참여 활발

수원시는 외국인 관광객의 모객을 위해 다양한 해외 인플루언서와의 협력을 시도하고 있다. 박지성 선수가 유년시절을 보낸 수원으로 동료를 초대해 명소를 함께 관광한 이벤트, 한-튀르키예 국제 부부가 화성행궁과 행리단길을 여행하는 콘텐츠, 한-일본 국제 부부가 남수헌과 수원미디어센터를 보여주는 콘텐츠, 한-일 커플이 한복을 입고 통닭거리와 드라마 촬영지를 돌아보는 콘텐츠, 일본인 나홀로 여행 크리에이터가 광교 일대를 홀로 여행하는 콘텐츠 등을 제작 지원했다.

외국인의 시선으로 만들어진 수원 관광 홍보 영상은 총 15만회가량 재생됐고, 자국 구독자들의 호감과 댓글이 이어지고 있다. 2026-2027 수원 방문의 해를 맞아 외국인 관광 활성화를 위해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수원시가 메가 채널과 협업한 프로젝트였다. 글로벌 관광 도시로의 도약을 꿈꾸는 수원시의 노력을 살펴본다.

◇세계인 사로잡을 수원만의 특화 관광 프로그램

수원에서의 추억을 간직한 외국인 방문객이 주변 사람들에게 수원을 여행지로 추천할 수 있도록 특화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에도 집중하고 있다. 스포츠, 웰니스, 먹거리 등을 결합한 개성 있는 수원만의 상품을 만드는 것이 목표다.

스포츠와 전통문화를 한 번에 즐길 수 있는 ‘수원 스포츠 로열 투어’가 그 대표 주자다. 궁중다과 만들기와 국궁, XR버스 등을 체험한 뒤 프로스포츠 경기를 관람하며 질서 있는 수원의 응원 문화를 경험하는 상품이다. 수원 야구와 농구단을 운영하는 구단과 연계해 수원에서의 하루를 알차게 즐길 수 있게 구성했다. 여행사를 통한 외국인 단체 예약이 잇따르고 있다.

또 수원 통닭거리를 글로벌 미식 관광 명소로 경험하는 ‘K-헤리티지 미식 여행’, 수원전통문화관에서 전통 문화 기반의 웰니스 관광을 체험하는 ‘몸과 마음의 건강을 찾는 여정’ 등 외국인들이 관심을 가질만한 프로그램들이 출시를 준비 중이다.

특히 수원시는 외국인 관광객 유치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지난 3월 경기관광공사와의 협업으로 중국 최대 온라인 여행 플랫폼을 활용한 판촉 방송을 지원했다. 이틀 동안 4회에 걸쳐 진행된 라이브 커머스는 총 1천633만뷰가 넘는 시청수를 기록해 수원의 매력을 입증했다. 중국인 쇼호스트와 인플루언서가 수원 스타필드에 마련된 현장 스튜디오에서 수원 시내 대형 쇼핑몰과 탈거리, 통닭거리와 행리단길 등 기존 관광지를 소개한 것이 인기를 끌며 중화권에 수원 방문의 해를 알리는 계기를 마련했다.

이 외에도 일본 교육여행 단체 팸투어를 진행, 일본 수학여행 수요가 수원에 관심을 갖도록 유도했다. 또 오는 8월 대만의 예능 프로그램의 촬영을 지원해 수원의 명소와 미식을 알릴 기회도 만들었다. 향후 현지 유력 여행사가 수원행 관광 상품을 개발하면 외국인 관광객이 유입되는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외국인이 편리하게 즐길 수 있는 인프라 구축

수원시는 외국인 방문객의 불편을 개선해 더 편리하게 수원을 즐기고 경험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데도 힘썼다. 수원 방문의 해를 기점으로 늘어나는 외국인 관광객의 소비가 지역 상권의 매출로 연결될 수 있도록 글로벌 모바일 결제 인프라를 정비한 것이 대표적이다.

앞서 수원시는 수원을 방문한 외국인들의 결제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지난 3월 한국간편결제진흥원과 업무협약을 맺었다. 제로페이 운영사와 협력해 글로벌 결제망을 연동함으로써 별도의 인프라 투입 없이 시스템 업데이트만으로 20개국 67개 해외 결제망을 활용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덕분에 현재 수원 관광 업소 밀집 지역의 3만7천개 가맹점에서 알리페이나 위챗페이, 유니온페이 등 해외 간편결제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지난 5~7월에는 수원역과 행궁동, 인계동 등 외국인이 많이 방문하는 지역 영업점 5천개소를 대상으로 특별 프로모션도 진행했다. 중국인들이 많이 사용하는 알리페이와 위챗페이 이용자들에게 수원을 알리기 위한 할인과 환율 우대가 연계됐다.

또 지역 내에서 외국인들의 글로벌 결제망 이용 확대를 위해 간편결제 홍보 키트를 가맹점에 배부해 영업점들이 해외 결제에 익숙해지도록 안내했다. 알리페이 앱에는 수원 전용 혜택과 함께 팔달구 행궁동과 수원화성을 ‘수원 필수 관광 구역’으로 소개하고, 장안구는 ‘클래식한 SNS 핫플레이스’로 소개하는 전용 홍보 이벤트도 펼쳤다.

수원시는 향후 애플페이 등 비접촉 결제를 선호하는 외국인 관광객도 편리하게 결제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결제 편의를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외국인 주민 함께 만들어가는 수원 방문의 해

성공적으로 수원 방문의 해를 추진하기 위해 외국인 관광객을 확대하는 일에는 수원시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 주민들도 힘을 모으고 있다. 이주민과 자매도시가 다양한 방법으로 동참한다.

먼저 수원 방문의 해를 이끌어가는 공식 시민 참여 기구인 시민추진단에는 캄보디아, 일본, 중국, 베트남. 몽골, 엘살바도르, 콩고 등 다양한 국가 출신의 이주민 10명이 위원으로 활동 중이다. 이주민 추진단원들은 다양한 관광 아이디어를 제시하고, 불편사항을 모니터링 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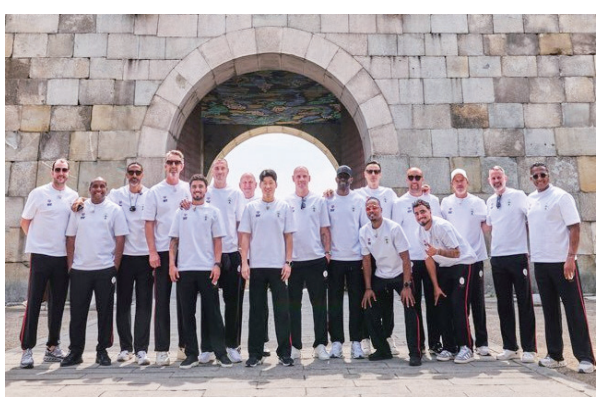
8월 중에는 외국인 주민이 자국 방문객에게 맞춤형 안내를 안정적으로 제공하는 ‘새빛 글로벌 프렌즈’도 새롭게 출범할 예정이다. 총 20개국에서 140여명이 참여해 수원을 방문한 자국민에게 맞춤형 가이드 역할을 하게 된다. 이들은 실전 중심 교육을 받고 한국의 문화와 수원의 가치를 자국어로 안내하는 첨병 역할을 하게 된다.

뿐만 아니라 수원시와 자매결연을 맺고 교류해온 국제 도시들에도 수원 방문의 해를 적극 홍보하고 있다.

클루지나포카, 프라이부르크, 타운즈빌 등에서 진행되는 행사에 수원시 홍보단을 파견했고, 이후에도 다각적인 방법으로 온오프라인 홍보를 진행할 계획이다. 여기에 서울 도심 주요 관광 거점에 체류하는 외국인들이 수원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알리고, 일본과 중국 등 주요 도시의 옥외 광고도 추진해 수원 방문에 대한 수요를 높이고 있다.

수원시 관계자는 “2026-2027 수원 방문의 해를 맞아 수원이 가진 역사·문화·미식·스포츠 자원을 세계인에게 본격적으로 알리고 있다”며 “세계적으로 확산된 K-문화에 대한 관심이 수원 방문과 지역 소비로 이어질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송하성 기자













수원시, '새빛 글로벌 프렌즈' 발대식…이재준 시장, "세계 잇는 든든한 연결고리 돼 달라"

'2026-2027 수원 방문의 해'를 맞아 수원을 전 세계에 알리는 역할을 하는 '새빛 글로벌 프렌즈'가 첫발을 내디뎠다.

수원특례시(시장 이재준)는 9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새빛 글로벌 프렌즈 스위치 온 발대식'을 열었다. 새빛 글로벌 프렌즈는 중국·베트남·일본·필리핀·태국·모로코·네팔·멕시코·몽골·콜롬비아·크로아티아 등 20개 국 출신 이주민 135명으로 구성됐다. 수원을 사랑하는 이주민들이 수원의 매력과 아름다움, 관광자원을 세계에 홍보한다. 수원시는 지난 4~5월 새빛 글로벌 프렌즈로 활동할 이주민을 모집했고, 135명을 선발했다. 새빛 글로벌 프렌즈는 수원을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주요 관광지·축제 현장을 안내하며 맞춤형 가이드를 제공하고, 수원의 맛집·축제·관광지 등과 관련된 관광 콘텐츠를 제작해 에스엔에스(SNS)로 전 세계에 홍보하는 활동을 한다. 외국인 방문객 맞춤형 개선 사항 모니터링 활동도 한다.

중국·베트남의 이주배경 예술단 축하공연으로 시작된 발대식은 새빛 글로벌 프렌즈 남녀 대표의 출범 선서 낭독,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의 격려사, '수원 역사·관광 이야기 특강' 등으로 진행됐다.

새빛 글로벌 프렌즈는 출범 선서에서 ▲수원의 역사와 문화, 관광자원을 세계에 널리 알리는 글로벌 홍보대사로서 자긍심과 책임감을 갖고 활동하고 ▲수원을 찾는 외국인 방문객에게 따뜻한 환대와 친절한 안내를 실천해 다시 찾고 싶은 수원을 만드는 데 앞장서며 ▲수원의 아름다움을 세계와 연결해 글로벌 도시 수원의 가치와 매력을 널리 알리겠다고 다짐했다.

이재준 수원시장은 "135명의 새빛 글로벌 프렌즈가 수원의 명소와 축제를 전 세계에 널리 알려주길 바란다"며 "수원과 세계를 잇는 든든한 연결고리가 돼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새빛 글로벌 프렌즈로 참여해 주신 이주민 여러분께 정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송하성 기자

'필요한 순간 누구나' 수원특례시, '모두의 생리대' 시범 운영...공공시설에 우선 설치



수원특례시(시장 이재준)가 생리용품 접근성을 높이고 시민의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해 별도의 소득·연령 기준 없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공공생리대 서비스 '모두의 생리대'를 시범 운영한다.

'모두의 생리대'는 성평등가족부가 주관하는 공공생리대 지원 시범사업으로, 수원시를 비롯한 전국 12개 기초지방정부가 참여한다. 생리용품이 필요한 사람은 가까운 공공시설에 설치된 지급기에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현재 수원시청과 4개 구청, 보건소, 가족여성회관, 여성문화공간-휴(休), 장애인종합복지관 등에 지급기를 우선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지급기에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를 받은 중형 생리대 2개가 담긴 소포장 제품을 제공한다. 제품 겉면에는 '모두의 생리대' 로고와 '공공생리대' 문구를 표시해 이용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했다. 소득이나 연령, 거주지 등에 따른 별도의 자격 확인 절차는 없다.

수원특례시는 8월에 자동지급기 40대, 9월에 10대를 추가로 설치해 9월 초까지 총 60대로 확대할 계획이다. '2026~2027 수원 방문의 해'를 맞아 시민과 관광객이 많이 찾는 수목원·미술관·박물관 등 문화·관광시설에도 설치한다.

자동지급기는 생리대 170팩을 보관할 수 있으며, 기기별 재고와 이용량을 자동으로 집계한다. 전담 인력이 지급기 작동 상태와 재고를 수시로 점검하고 부족한 물량을 신속하게 보충할 예정이다.

수원시 관계자는 "생리용품은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위해 꼭 필요한 생활필수품으로, 필요한 순간 가까운 공공시설에서 불편 없이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며 "시민의 목소리를 반영해 생리용품 접근성을 높이고 일상 속 불편을 세심하게 해소하는 여성 건강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수원특례시는 새빛생활비패키지 중 하나인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지원 사업' 하반기 신청을 받고 있다. 여성청소년들에게 생리용품 구매 비용을 지역화폐로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수원시에 주민등록을 두거나 외국인등록·국내거소신고를 한 11~18세(2008~2015년 출생) 여성청소년이다. 성평등가족부 저소득층 생리용품 바우처 지원 대상자와 상반기(1차)에 이미 신청해 지원받은 청소년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 금액은 1인당 월 1만 1800원, 연 최대 14만 2000원이다. 자격요건 확인을 거쳐 9월 1일 이후부터 순차적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지원금은 모바일 카드 형태로 지급되며, 수원페이 가맹 편의점과 온라인몰에서 생리용품 구매에 사용할 수 있다.

청소년 본인이나 대리인은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이지은 기자

사진 통해 가족 사랑과 추억 쌓아요!

용인시가족센터-용인문화재단, 한부모가족 프로그램

사회복지법인 지구촌사회복지재단 용인시가족센터(센터장 유지영)는 지난 7월 28일부터 8월 4일까지 4회기에 걸쳐 한부모가족의 사진 촬영 기술 습득 및 가족 친밀감, 정서적 유대감 형성을 위한 여름방학 프로그램 '함께 나누는 마음, 함께 자라는 부모, 함마음'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한부모가족 총 14가정(33명)이 참여한 이번 프로그램은 사진 교육과 야외 출사 등 다채로운 활동으로 큰 호응을 얻었다.

참가자들은 ▲사진 분야 기본 교육 ▲백남준아트센터 출사 ▲아쿠아리움 출사 ▲가족만의 '기억 상자' 제작 등에 참여했다.

특히 마지막 회기에는 그동안 축적된 사진 인화물과 추억 카드, 편지 등의 기록물을 활용해 각 가정의 특별한 기억 상자를 만들며 서로의 소중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이번 프로그램은 용인문화재단과의 '2026년 생활밀착형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가가호호'에 선정되어 공동운영사업으로 추진됐다. 용인시가족센터는 프로그램 장소 제공 및 참여자 모집 관리를 전담했으며, 용인문화재단은 강사비, 다과비, 체험비 등을 지원하여 한부모가족이 풍성한 여름활동을 즐길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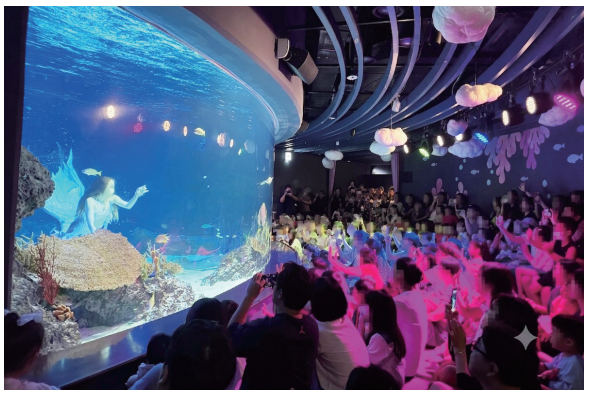
이 프로그램에 참여한 한 보호자는 "여름방학 동안 아이와 함께 알찬 시간을 보내고 잊지 못할 좋은 추억을 만들었다"며 "시원한 실내에서 진행된 다채로운 프로그램 덕분에 가족 간 이해도 깊어지고 사진 촬영 기술도 배워 일상에 큰 도움이 되었다"고 소감을 전했다.

센터 관계자는 "함마음 프로그램은 오는 11월 14일까지 지속 운영될 예정"이라며, "8월 말에는 가족 영화 관람을 진행하고, 9월에는 실생활에 유용한 '정리수납 꿀팁 1·2' 교육을 선보이는 등 한부모가족을 위한 다양한 지원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070-7475-9205

송하성 기자





용인시가족센터, '간담회' 개최...이용자 소통의 장

사회복지법인 지구촌사회복지재단 용인시가족센터(센터장 유지영)는 오는 8월 29일(토) 오전 10시, 용인시가족센터 4층 강당에서 '2026년 용인시가족센터 이용자 간담회'를 개최한다.

이번 간담회는 센터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직접 듣고, 이용자와 센터가 함께 더 나은 서비스 운영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서는 센터 프로그램과 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느낀 점을 비롯해 프로그램에 대한 의견과 제안, 센터에 바라는 점 등을 자유롭게 나누며 이용자와 센터가 서로의 생각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특히 간담회에서 제시된 의견은 향후 센터 운영과 사업 개선 과정에 반영해, 용인시 가족의 실제 필요와 요구에 더욱 가까운 가족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초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용인시가족센터 이용자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온라인을 통해 사전접수가 이루어지고 있다. 유지영 센터장은 "센터의 다양한 사업과 서비스는 이용자들의 목소리를 통해 더욱 발전할 수 있다"며 "이번 간담회가 이용자와 센터가 함께 의견을 나누고, 더 나은 가족서비스를 만들어가는 의미 있는 소통의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용인시가족센터는 용인시에서 설립하고 사회복지법인 지구촌사회복지재단에서 운영하는 가족복지시설로, 용인시 가족복지증진을 위하여 가족관계, 가족돌봄, 가족생활, 가족과 함께하는 지역공동체 등의 전문 가족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송하성 기자

용인시가족센터, 생애주기별 맞춤형 가족소통교육 '발자국 소통학교' 운영



용인시가족센터(센터장 유지영)는 부모-자녀 간 긍정적인 상호작용과 의사소통 역량을 강화하고, 건강한 부모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가족소통교육-발자국 소통학교'를 운영했다고 밝혔다.

발자국 소통학교는 유아기·아동기·청소년기 자녀를 둔 부모를 대상으로 자녀의 발달 특성을 이해하고, 각 시기에 필요한 의사소통 방법과 부모의 역할을 배울 수 있도록 구성한 맞춤형 교육이다.

이번 교육은 자녀의 성장단계에 따라 달라지는 가족의 관계와 소통방식을 이해하고, 가정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실질적인 소통방법을 익히는 데 중점을 두었다.

▲유아기에는 자녀의 감정을 이해하고 적절하게 반응할 수 있도록 감정코칭을 중심으로 부모-자녀 간 공감과 소통방법을 교육했다. ▲아동기에는 자녀의 생각과 감정을 존중하는 공감대화와 경청기술을 통해 부모-자녀 간 긍정적인 관계를 형성하는 방법을 살펴봤다. ▲청소년기에는 자녀의 발달과 변화를 이해하고 이성교제 및 성교육 등 청소년기에 나타나는 다양한 상황에서 부모와 자녀가 갈등을 줄이고 대화할 수 있는 소통방법을 다뤘다.

교육에 참여한 부모들은 자녀의 연령과 발달단계에 따라 필요한 부모의 역할과 소통방법이 다르다는 점을 이해하고, 평소 자신의 대화방식과 양육태도를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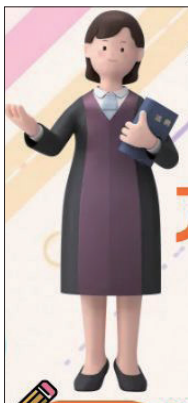
유지영 센터장은 "자녀가 성장하는 과정에서 부모와 자녀가 서로를 이해하고 소통하는 것은 건강한 가족관계를 만들어가는 중요한 기반"이라며 "이번 교육을 통해 부모들이 자녀의 발달 특성을 이해하고 각 시기에 맞는 소통 방법을 익히는 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용인시가족센터는 용인시에서 설립하고 사회복지법인 지구촌사회복지재단에서 운영하는 가족복지시설로, 용인시 가족복지증진을 위하여 가족관계, 가족돌봄, 가족생활, 가족과 함께하는 지역공동체 등의 전문 가족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송하성 기자

결혼이민자 취업교육 지원사업

사법통역사 자격증 취득반 모집





대 상 용인시 거주 한국어능력 중급이상 결혼이민자(F-5, F-6, 귀화자) 15명
★21회기 100% 참여 가능자 우선 접수

기 간 09.07(월) ~ 11.18(수) / 매주 월,수 10:00~13:00 (총 21회기)

장 소 용인시가족센터 3층 다목적강의실2(수지구 법조로 230, 상현동)

내 용 취업기초 소양교육 1회기, 사법통역사 자격증 취득과정 20회기
① 출석률 100% 참여 시 수료 가능
② 11.18(수) 필기시험, 실기시험 실시
★ 교재비 자부담(30,000원)
★ 자격시험(필기, 실기) 비용 자부담(110,000원)

신 청 ★ 아래의 2가지 모두 신청해야 신청완료!!(아래 QR코드 스캔)
1.용인시가족센터 홈페이지 가입 후 프로그램 신청(결혼이민자 이름으로 신청!!)
2.구글폼(온라인폼) 신청

1번 2번

문 의 가족서비스팀 070-7477-8575



용인특례시 용인시가족센터 YONGINSI FAMILY CENTER 사회복지법인 지구촌사회복지재단

A 가 あ 文

결혼이민자 취업교육 지원사업

의료통역사 자격증 취득반 모집



#병원근무 #K-메디 코디네이터 #통역안내

대 상 용인시 거주 한국어능력 중급이상 결혼이민자(F-6, F-5, 귀화자) 15명
★21회기 100% 참여 가능자 우선 접수

기 간 09.08(화) ~ 11.19(목) / 매주 화,목 10:00~13:00(총 21회기)

장 소 용인시가족센터 3층 다목적강의실2
(수지구 법조로 230, 상현동)

내 용 취업기초 소양교육 1회기, 의료통역사 자격증 취득과정 20회기
① 출석률 100% 참여 시 수료 가능
② 11.19(목) 필기시험, 실기시험 실시
★ 교재비 자부담(30,000원)
★ 자격시험(필기, 실기) 비용 자부담(110,000원)

신 청 ★아래의 2가지 모두 신청해야 신청완료!!(아래QR코드 스캔)
1.용인시가족센터 홈페이지 가입 후 프로그램 신청(결혼이민자 이름으로 신청!!)
2.구글폼(온라인폼) 신청

1번 2번

문 의 가족서비스팀 070-7477-8575



용인특례시 용인시가족센터 YONGINSI FAMILY CENTER 사회복지법인 지구촌사회복지재단

2026 용인시 가족센터 이용자 간담회

함께 만드는 변화

다양한 의견을 공유하고,
더 나은 프로그램을 함께 만들어가는
소통의 시간입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참여하시는 모든 분께
간담회 당일 소정의 기념품을 드립니다.

신청기간
2026. 7. 27.(월)~8. 27.(목)

사전접수
구글폼(QR 접속) 작성 >>
(당일 현장접수 가능)

참여대상
용인시가족센터 이용자 누구나

진행내용
프로그램 관련 의견 제안 및 제언 등

문 의
운영기획팀 070-7477-8547

8. 29.(토)
10:00~11:00

용인시가족센터
4층 강당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법조로 230)

용인특례시 용인시가족센터 YONGINSI FAMILY CENTER 사회복지법인 지구촌사회복지재단

용인시가족센터

수준별 한국어교육

신청 방법 ※ 아래 2가지 모두 신청 시 접수 완료 (아래 QR코드 스캔)
1. 용인시가족센터 홈페이지 가입 후 한국어교육 신청
(결혼이민자 및 외국인 이름으로 신청!!)
2. 구글폼(온라인) 신청

1. 홈페이지 신청 2. 구글폼 신청

교육 내용 ※ 공휴일 휴강, 일정 및 장소는 변동될 수 있음.

대상	용인시 결혼이민자(F-6, F-5, 귀화자) 각 반별 15명(신규 우선, 기존 선착순)			
반 명	요 일	운영 시간	학기 일정	장소
1단계	화, 목	10:00~13:00	9/1(화)~11/26(목)	처인구청 : 처인구 금령로 50 (김량장동)
2단계		13:00~16:00		
발음·말하기 (중급)		10:00~13:00		온라인(ZOOM)
토픽 5~6급 대비		13:00~16:00		용인시가족센터 : 수지구 법조로 230(상현동)
대상	용인시 결혼이민자 및 외국인 각 반별 15명(신규 우선, 기존 선착순) ※ 동일 단계 온라인·오프라인 중 1개 반만 신청 가능			
반 명	요 일	운영 시간	학기 일정	장소
3단계 (오프라인)	월, 수	13:00~16:00	9/2(수)~11/30(월)	처인구청 : 처인구 금령로 50 (김량장동)
4단계 (오프라인)		10:00~13:00		
4단계 (온라인)	화, 목	13:00~16:00	9/1(화)~11/26(목)	온라인(ZOOM) (종강일 : 용인시가족센터)
토픽 3~4급 대비		10:00~13:00		

※ 문의 : 가족서비스팀 070-7477-8575

용인특례시 용인시가족센터 YONGINSI FAMILY CENTER 사회복지법인 지구촌사회복지재단

체류·노동 관련 맞춤형 정보 제공해요

용인외복, 베트남 외국인근로자 대상 법률·체류 간담회



용인시외국인복지센터(센터장 김용국)는 지난 8월 9일 센터 내에서 베트남 외국인근로자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베트남 근로자를 위한 체류 및 출입국 규정·노동법률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베트남 대사관 노무관 1등비서 TRAN QUANG DUY와 베트남 EPS 근로자 관리 사무소장 CHU QUANG DUONG이 참석해 한국에서 근무하는 베트남 근로자들이 안정적으로 체류하고 근로할 수 있도록 체류제도와 노동 관련 정책을 안내하고 현장 상담을 진행했다.

실제로 간담회에서는 외국인근로자들이 한국 생활과 근로 과정에서 실제로 필요로 하는 정보를 중심으로 ▲EPS 근로자 관리 및 지원 사무소 연락처 ▲최근 정책 변경사항 ▲귀국 신고 절차 ▲EPS 근로자 보증금 예치 절차 ▲비자 변경 신고 절차 ▲E-7-4 및 E-7-R 비자 변경 관련 정보 ▲외국인근로자 전용 보험 ▲체류기간 초과 근로자 관련 제도 등 8개 주요 주제가 다뤄졌다. 특히 일방적인 제도 설명에 그치지 않고 참석자들이 체류와 근로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을 직접 질문하고 관계자가 답변하는 질의응답을 진행해, 필요한 정보를 현장에서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김용국 센터장은 "오늘 베트남 근로자 여러분과 함께하게 되어 매우 뜻깊고 기쁘다"며 "베트남 근로자들은 지역 산업현장을 함께 이끌어가는 소중한 이웃이자 지역사회의 구성원이다. 한국에서 생활하고 일하는 동안 필요한 정보를 정확하게 알고, 어려움이 있을 때 가까운 곳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센터가 든든한 역할을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간담회가 체류와 근로에 필요한 제도를 이해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관계기관과 협력해 외국인근로자들이 안정적으로 생활하고 일할 수 있도록 상담 기회를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용인시외국인복지센터는 외국인주민의 안정적인 지역사회 정착과 사회통합을 지원하고 있다. 송하성 기자

용인시가족센터, 아이돌보미 '스마트 노무 교육' 집담회



용인시가족센터(센터장 유지영)는 아이돌봄사의 실무 역량 강화와 상호 소통 활성화를 위해 「2026년 아이돌봄지원사업 스마트노무교육 집담회」를 총 3차에 걸쳐 성공적으로 운영했다고 밝혔다. 이번 집담회는 지난 5월 8일 1차를 시작으로 5월 20일 2차, 6월 23일 3차까지 총 3회기에 걸쳐 용인시가족센터 3층 다목적강의실2에서 진행됐다.

교육은 안전교육과 센터장 인사말을 시작으로 ▲센터·아이돌봄사·이용자 간 상호존중을 위한 최신 사례 공유 ▲법정 근로시간, 연장·야간·휴일 근로 가산수당 기준 및 주휴수당 계산 실습 등 노무교육 ▲스마트 기기 활용에 어려움을 겪는 아이돌봄사를 위한 1:1 맞춤형 실습 순으로 진행됐다. 특히 시스템 접속부터 수료증 제출까지 전 과정을 시각화한 '법정 필수교육 매뉴얼'을 제작·배포하여 교육 이후에도 참여자들이 스스로 행정 절차를 처리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참여자들은 "평소 어렵게 느꼈던 근로시간·주휴수당 계산법을 명확히 이해하게 됐다."는 반응과 함께, 동료들과의 교류를 통해 아이돌봄사로서의 소속감과 책임감을 다졌다는 소감을 다수 전했다.

용인시가족센터는 앞으로도 아이돌봄사의 전문성 향상과 양질의 돌봄서비스 제공을 위해 다양한 교육을 지속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아이돌봄서비스 이용과 아이돌봄사 활동에 관심 있는 시민은 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송하성 기자

이상일 시장, 한국-베트남 페스티벌 개막식 참석...용인 홍보부스 찾아 관계자들 격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7일 저녁(현지시간) 베트남 다낭 동해공원에서 열린 '2026년 제5회 한국-베트남 페스티벌'에 참석해 용인시 홍보부스 운영단을 격려하고, 개막식에 참석해 축하의 뜻을 전했다.

이 시장은 용인특례시와 우호협약을 체결한 다낭시로부터 주빈 자격으로 행사에 공식 초청받았다. 행사에는 장정순 시의회의장, 신나연 시의회 자치행정위원장, 강영웅 시의원 등도 참석했다.

한국-베트남 페스티벌은 다낭시가 한국 지방정부 등과의 교류 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해 매년 개최하는 행사다. 다낭시는 한국인이 많이 찾는 국제 관광지 중 하나이자 한국 기업의 투자와 교민이 꾸준히 늘고 있는 지역이다. 다낭시는 한국과 베트남 사이의 상호 이해를 증대하고, 문화교류를 활성화하고자 지난 2022년부터 제1회 한국-베트남 페스티벌을 개최하고 있다.

이 시장은 행사 조직위원장인 응우옌티안티 다낭시 인민위원회 부위원장과 한정일 주다낭 대한민국 총영사를 비롯해 행사에 초청받은 한국 지자체 기업, 일본 러시아 스페인 라오스 등 각국 총영사관 관계자와 함께 개막식을 참관했다.

이 시장은 응우옌 부위원장, 한 총영사 등과 함께 개막 버튼에 손을 얹고 개막을 축하하는 불꽃을 쏘아 올렸고, 한국 공연단의 길놀이 공연을 따라 한국의 소고춤과 베트남의 대나무춤에 참여하며 행사 개최를 축하했다. 이 시장은 "다낭시의 초청으로 페스티벌 주빈으로 참석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다낭시가 주최한 페스티벌이 한국과 베트남, 용인과 다낭 사이의 우정을 돈독히 하는 데 큰 기여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며 축제를 잘 준비해 준 다낭시 인민위원회와 주다낭 대한민국 총영사관에 감사의 뜻을 전한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내년에는 2027년 제6회 한국-베트남 페스티벌 개최에 맞춰 용인 청년봉사단을 다낭시에 파견할 계획"이라며 "이같은 교류를 통해 양 도시가 더욱더 친밀해지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용인시는 이번 행사 기간 홍보부스를 마련, 행사를 찾은 다낭시민과 관광객 등을 대상으로 용인을 홍보하는 활동을 했다. 송하성 기자



더 건강한 아이돌봄서비스 함께 해요

구리시가족센터, 아이돌보미 정서치유프로그램 운영

구리시가족센터는 지난 8월 13일 오전 구리시에서 활동하는 아이돌봄사 24명을 대상으로 8월 아이돌보미 정서치유프로그램 '마음을 채우는 푸드테라피'를 진행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건강한 식재료를 활용한 요리 체험활동을 통해 아이돌봄사의 스트레스를 완화하고 정서적 안정과 심리적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참가자들은 함께 소통하고 교류하는 시간을 통해 친목과 소속감을 증진하고 건강한 돌봄 환경을 조성을 다짐했다.

구리시가족센터는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가정에 안전하고 건강한 돌봄활동을 제공하기 위해 아이돌봄사 선생님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다양한 정서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문의 031-551-3133

송하성 기자
자료 구리시가족센터

2026년 하반기 소규모 학습모임 모집

구리시, 2개 분야 40개 모임에 강사비 45만 원씩 지원



구리시(시장 신동화)는 일상 속 배움의 기회를 확대하고 시민 누구나 소외 없이 참여할 수 있는 열린 평생학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8월 24일부터 「2026년 하반기 소규모 학습 모임 지원사업」에 참여할 학습 모임을 모집한다.

사업 분야는 학습 모임 운영 장소에 따라 ▲「구리시 우리 동네 학습공간 프로그램 운영」 ▲「찾아가는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 등 2개 분야로 나뉜다. 시는 하반기에 총 40개 소규모 학습 모임을 선정해 모임당 강사비 45만 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신청 대상은 구리시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성인 5명 이상으로 구성된 모임이다. 참여자는 프로그램과 강사, 학습공간을 직접 선정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다만 평생학습의 취지에 맞지 않는 강좌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을 희망하는 모임은 구리시평생학습포털에서 신청서 서식을 내려받아 작성한 뒤 구리시청 평생학습과를 방문하거나 전자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구리시는 신청 내용의 적합 여부를 검토한 뒤 우선순위에 따라 지원 대상을 결정할 예정이다. 선정된 학습 모임은 9월 14일부터 11월까지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된다.

신동화 구리시장은 "이번 사업은 배움의 문턱을 낮춰 일상에서 학습의 즐거움을 누릴 수 있도록 돕는 마중물이 될 것이다."라며 "시민 누구나 원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촘촘한 평생학습 인프라를 구축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구리시는 생활 속 학습 모임 지원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2026년 우리 동네 학습공간 신규 모집」을 연중 상시 진행하고 있다.

「우리 동네 학습공간」은 지역 내 유휴 공간을 주민에게 개방할 수 있도록 학습공간으로 지정하고, 해당 공간에서 다양한 학습 활동이 이루어지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자세한 사항은 구리시평생학습포털(https://guri.gseek.kr)에서 확인하거나 구리시청 평생학습과(☎031-550-2186)로 문의하면 된다.

송하성 기자

구리시 공립작은도서관, 모집해요 하반기 독서문화 프로그램 참여자



구리시(시장 신동화) 공립작은도서관은 지역 어린이들에게 유익한 배움과 독서의 즐거움을 제공하기 위해 오는 8월 31일부터 11월 중순까지 관내 3개 공립작은도서관(교문2동·수택·인창동)에서 「2026년 하반기 독서 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번 프로그램은 어린이들이 집 가까운 곳에서 질 높은 교육 내용을 손쉽게 접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각 강좌는 총 10회 과정으로 운영되며, 책을 매개로 한 다채로운 활동을 선보인다.

개설 강좌는 영유아와 초등학생의 발달 단계에 맞춰 총 6개로 구성됐다. 2020~2021년생 유아를 대상으로 창의력과 상상력을 키우는 「상상 톡톡! 만들기 공작소」가 교문2동 작은도서관에서, 책과 함께 즐겁게 노는 「신나는 도서관 책놀이터」가 인창동 작은도서관에서 운영돼 아이들의 호기심을 자극할 예정이다.

초등학교 1~3학년 학생을 대상으로는 ▲실생활 속 과학 원리를 탐구하는 「원리 쏙쏙! 과학실험실」(교문2동) ▲재미있는 보드게임으로 역사를 익히는 「생각이 커지는 역사 한 판!」(수택) ▲생각 표현력을 키우는 「마음이 보이는 글쓰기 한 줄!」(수택) ▲어휘력과 독해력을 길러주는 「똘똘한 도서관 문해력 교실」(인창동) 등 기초 학습에 대한 흥미와 문해력을 높이는 맞춤형 강좌가 운영된다.

모든 강좌는 참여형 수업으로 진행되며, 수강 신청은 8월 18일부터 구리시립도서관 누리집을 통해 선착순으로 받는다.

신동화 구리시장은 "작은도서관은 시민들이 일상에서 가장 먼저 만나는 친근한 문화 공간"이라며 "하반기 프로그램을 통해 어린이들이 동네 도서관에서 책과 친해지고, 올바른 독서 습관과 창의력을 바탕으로 한 단계 더 성장하는 뜻깊은 시간을 보내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아이들이 책과 배움 속에서 꿈을 키우는 '동화 같은 구리시'를 만들기 위해 생활권 도서관의 독서 문화 프로그램을 꾸준히 확대하겠다"라고 덧붙였다. 자세한 사항은 구리시립도서관 누리집 공지 사항에서 확인하거나 작은도서관 강좌 담당자(☎031-550-2882)에게 문의하면 된다.

송하성 기자

경기도, 주거취약 이주민 전수조사...지원은 두텁게, 불법은 엄정하게

비닐하우스·컨테이너 등 주거취약 이주민 전수조사...거주 불가능 시 임시거처 마련 검토

경기도가 추미애 경기도지사 지시에 따라 폭염과 화재에 취약한 비닐하우스·컨테이너 등 주거취약시설 거주 이주민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했다. 최근 기록적인 폭염 속 주거용 비닐하우스 거주자의 안전 문제가 제기된 데 따른 조치다.

추미애 경기도지사는 지난 7월 12일 광명시 주거용 비닐하우스 현장을 방문한 뒤 “경기도에 사는 주민 누구도 재난과 안전의 사각지대에 놓여서는 안 된다”며 “폭염 등 재난 취약한 이주민들의 생활환경을 면밀히 점검하고 필요한 보호조치를 신속히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경기도는 7월 24일부터 8월 14일까지 3주간 31개 시군의 농·축산·어업 분야 이주노동자(고용허가제·계절근로제)가 거주하는 숙소 4,420개소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했다. 조사는 비닐하우스와 컨테이너, 조립식 건축물 등 주거취약시설을 중심으로 주거시설 적법 여부와 화장실 등 필수 시설 구비 여부를 점검했다.

조사 결과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생활하는 이주민에 대해서는 경기도 기후보험과 복지사업 등을 연계해 긴급구호와 생활환경 개선을 지원할 예정이다.

농지 전용 신청 등 적법 절차 없는 가설건축물에 숙소를 제공한 사업주에게는 시군과 협의해 행정절차를 추진한다.

안전상 계속 거주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주거시설이 확인될 경우에는 시군과 협력해 임시거주시설을 마련하는 등 긴급 보호조치도 취한다. 의료·복지·상담 등 기존 이주민 지원사업과도 연계해 주거취약 이주민의 생활 안정과 지역사회 정착을 지원하는 통합 지원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이 밖에도 경기도는 인도적 보호와는 별개로 제도 악용이나 지역사회 질서를 저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유관기관과 협력해 법과 원칙에 따라 조치하기로 했다.

추미애 경기도지사는 “폭염 등 재난은 주거환경이 취약한 주민들에게 더욱 큰 위험으로 다가온다”며 “이주민들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면밀히 살피고 재난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안전망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지난 7월 14일부터 고용노동부 및 시군과 합동으로 도내 산업현장과 이주노동자 주거시설의 폭염 대응 실태도 점검하고 있다.

〈베트남어 하단, 러시아어 5면, 태국어 5면〉

파파야스토리

Tỉnh Gyeonggi tiến hành điều tra toàn diện người nhập cư đang sống trong điều kiện nhà ở dễ bị tổn thương – tăng cường hỗ trợ, xử lý nghiêm các hành vi vi phạm pháp luật

Theo chỉ đạo của Tỉnh trưởng Gyeonggi bà Choo Mi-ae, tỉnh Gyeonggi sẽ tiến hành điều tra toàn diện đối với người nhập cư đang sinh sống tại các cơ sở nhà ở dễ bị tổn thương như nhà kính và container, vốn tiềm ẩn nguy cơ cao trước nắng nóng gay gắt và hỏa hoạn. Đây là biện pháp được triển khai sau khi vấn đề an toàn của những người sinh sống trong nhà kính được sử dụng làm nơi ở được đặt ra trong bối cảnh đợt nắng nóng kỷ lục gần đây.

Sau khi đến thăm một khu nhà kính được sử dụng làm nơi ở tại thành phố Gwangmyeong vào ngày 12/7 vừa qua, Tỉnh trưởng Gyeonggi Choo Mi-ae đã chỉ đạo: “Không một cư dân nào đang sinh sống tại tỉnh Gyeonggi được phép rơi vào khoảng trống về phòng chống thiên tai và an toàn”, đồng thời yêu cầu “kiểm tra kỹ lưỡng môi trường sống của người nhập cư dễ bị tổn thương trước các thảm họa như nắng nóng gay gắt và nhanh chóng triển khai các biện pháp bảo vệ cần thiết.”

Theo đó, tỉnh Gyeonggi sẽ tiến hành điều tra toàn diện trong 3 tuần, từ ngày 24/7 đến ngày 14/8, đối với 4.420 cơ sở lưu trú dành cho lao động nhập cư trong các lĩnh vực nông nghiệp, chăn nuôi và thủy sản (theo Chế độ cấp phép việc làm và Chế độ lao động thời vụ) tại 31 thành phố và huyện trong tỉnh. Cuộc điều tra sẽ tập trung vào các cơ sở lưu trú dễ bị tổn thương như nhà kính, container và các công trình lắp ghép, đồng thời kiểm tra tính hợp pháp của các cơ sở này cũng như việc có đầy đủ các tiện nghi thiết yếu như nhà vệ sinh hay không.

Theo kết quả điều tra, đối với những người nhập cư đang sinh sống trong điều kiện nhà ở xuống cấp, tỉnh Gyeonggi dự kiến sẽ liên kết với các chương trình như Bảo hiểm khí hậu Gyeonggi và các chính sách phúc lợi để hỗ trợ cứu trợ khẩn cấp và cải thiện môi trường sống. Đối với những chủ sử dụng lao động bố trí chỗ ở cho người lao động tại các công trình tạm không thực hiện các thủ tục hợp pháp như xin phép chuyển đổi mục đích sử dụng đất nông nghiệp, tỉnh sẽ phối hợp với các thành phố và huyện để tiến hành các thủ tục hành chính cần thiết.

Trong trường hợp phát hiện cơ sở lưu trú được xác định là không đảm bảo an toàn để tiếp tục sinh sống, tỉnh sẽ phối hợp với các thành phố và huyện để thực hiện các biện pháp bảo vệ khẩn cấp, chẳng hạn như bố trí nơi ở tạm thời. Tỉnh cũng có kế hoạch xây dựng hệ thống hỗ trợ tích hợp, liên kết với các chương trình hỗ trợ người nhập cư hiện có trong các lĩnh vực như y tế, phúc lợi và tư vấn, nhằm hỗ trợ ổn định cuộc sống và hòa nhập cộng đồng địa phương cho những người nhập cư đang sống trong điều kiện nhà ở không đảm bảo.

Ngoài ra, tách biệt với các biện pháp bảo vệ nhân đạo, tỉnh Gyeonggi sẽ phối hợp với các cơ quan liên quan và thực hiện các biện pháp theo đúng pháp luật và nguyên tắc đối với những hành vi lợi dụng chính sách, chế độ hoặc gây ảnh hưởng đến trật tự cộng đồng.

Tỉnh trưởng Gyeonggi Choo Mi-ae cho biết: “Các thảm họa như nắng nóng gay gắt gây ra nguy cơ lớn hơn đối với những người dân đang sống trong điều kiện nhà ở dễ bị tổn thương. Chúng tôi sẽ kiểm tra kỹ lưỡng để người nhập cư có thể sinh sống trong môi trường an toàn hơn, đồng thời từng bước xây dựng mạng lưới an toàn nhằm bảo vệ các nhóm dễ bị tổn thương trước thiên tai.”

Một mặt khác, kể từ ngày 14/7 vừa qua, tỉnh Gyeonggi đang phối hợp với Bộ Việc làm và Lao động cùng các thành phố và huyện trong tỉnh để kiểm tra tình hình ứng phó với nắng nóng tại các cơ sở sản xuất và nơi ở của lao động nhập cư trên địa bàn.

〈한글 기사 상단, 인터넷에서 파파야스토리를 검색하세요, 더 다양하고 많은 정보를 만날 수 있어요〉

파파야스토리

'다문화가족 마음의 색채, 향기로 물들다'

광주시가족센터, 다문화 이해교육 강사 정서강화 프로그램



광주시가족센터(센터장 이수희)는 지난 7월 25일, 다문화 이해교육 강사로 활동하는 결혼이민자 강사 10명을 대상으로 강사 활동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소진을 예방하고, 강사 간 네트워크 형성과 정서적 지지를 위해 정서회복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색채심리 감정카드 활동과 조향 테라피를 통해 현재 자신의 감정과 마음 상태를 돌아보고, 나만의 향수를 만들었다. 또한 스몰토크를 통해 서로의 근황을 나누고 공감하며 웃음과 위로를 나누었다.

참여자들은 "정서적 재충전과 활력에 큰 도움이 되었다.", "동료들과 함께 웃으며 활동할 수 있어 좋았다.", "나만의 향수를 만들며 마음을 표현할 수 있어 의미 있었다." 등의 소감을 전했다.

광주시가족센터는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강사들이 서로를 응원하고 공감하며 정서적 안정을 얻는 것은 물론, 지속 가능한 강사 활동을 위한 에너지를 충전하고 네트워크를 더욱 견고히 했다. 앞으로도 강사들의 건강한 활동과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정서지원 및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031-798-7141 송하성 기자

광주시보건소, 국가암검진 조기 수검 당부…검진 권장

광주시보건소는 국가암검진 대상 시민들에게 연말 검진 수요가 집중되기 전 가까운 검진 기관을 방문해 국가암검진을 받을 것을 독려했다고 7일 밝혔다. 암은 우리나라 사망원인 1위 질환으로, 조기에 발견해 치료할 경우 완치율과 생존율을 높일 수 있어 정기적인 국가암검진이 중요하다. 특히, 연말에는 검진 예약이 몰려 원하는 시기에 검진을 받기 어려울 수 있는 만큼 대상자들은 미리 검진을 받는 것이 권장된다. 올해 국가암검진 대상자는 암종별 연령 및 대상 기준에 해당하는 시민이다.

검진 대상은 ▲위암(40세 이상, 2년마다) ▲대장암(50세 이상, 매년) ▲유방암(40세 이상 여성, 2년마다) ▲자궁경부암(20세 이상 여성, 2년마다) ▲간암(40세 이상 고위험군, 6개월 마다) ▲폐암(54~74세 중 30갑년 이상 흡연력을 가진 고위험군, 2년마다)이다.

광주시보건소는 국가암검진 참여를 독려하는 한편, 암 예방 교육과 홍보, 국가암검진 안내 및 수검 독려, 저소득층 암 환자 의료비 지원, 재가암 환자 관리 사업 등 예방부터 치료 이후 관리까지 연계한 통합 암 관리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재가 암 환자를 대상으로 근력 강화 운동과 영양 관리 교육 등을 포함한 맞춤형 건강 프로그램을 운영해 신체기능 회복과 건강한 일상 복귀를 지원하고 있다. 한편, 국가암검진 대상 여부와 검진기관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 '더 건강보험'에서 확인할 수 있다. 031-760-2556 송하성 기자

다문화가족 지역 정착 지원...광주시가족센터 결혼이민자 멘토 상반기 간담회 개최



광주시가족센터(센터장 이수희)는 관내 다문화가족과 결혼이민자의 안정적인 지역사회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활동하고 있는 결혼이민자 멘토를 대상으로 2026년 상반기 멘토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상반기 멘토 활동을 돌아보고 서로에게 경험을 공유하는 한편, 하반기 활동계획을 함께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센터장, 팀장과 담당자를 비롯한 멘토들이 참석하여 상반기 활동 성과를 공유하고, 현장에서의 다양한 경험과 의견을 나누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2026년 상반기 멘토 활동 실적을 공유하고 사업 운영 현황을 함께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하반기 활동 방향과 운영 계획에 대해 논의하였다. 특히 멘토들은 활동 과정에서의 뜻깊은 경험과 활동 중 애로사항을 나누고, 향후 보다 효과적인 멘토 활동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였다.

광주시가족센터 이수희 센터장은 "멘토 여러분의 현장 경험과 따뜻한 나눔은 관내 다문화가족과 결혼이민자의 안정적인 지역사회 정착에 큰 힘이 되고 있다. 앞으로도 결혼이민자와 다문화가족이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지금처럼 변함없는 관심과 따뜻한 활동을 부탁드린다."라고 격려하였다.

광주시가족센터는 지역사회의 다양한 가족의 복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송하성 기자

Gyeonggi Province Ongoing Recruitment of Tenants for Existing Jeonse Rental Housing for Low-Income Residents...Apply at your local administrative welfare center



Gyeonggi Province and Gyeonggi Housing & Urban Development Corporation (GH) will continuously recruit tenants for the '2026 Existing Housing Jeonse Lease' starting August 4 to ensure housing stability for low-income households in the province.

*What is Jeonse Lease for Existing Housing? : Jeonse Lease for Existing Housing is one of Korea's various housing welfare systems. It is a program in which, once a person selected as a tenant finds a desired home, GH enters into a Jeonse contract with the homeowner and then subleases the property to the tenant.

*Is the rent affordable? : The rental conditions are excellent. GH supports up to 95% of the Jeonse deposit, with a maximum limit of 130 million won. On the supported amount, tenants simply need to pay GH an affordable annual rent of 1.2% to 2.2%. Tenants can reside stably for up to 30 years.

*Who can apply? : Low-income Gyeonggi-do residents and multicultural families can apply. First, you must be a member of a non-homeowning household residing in Gyeonggi-do. In addition, you must meet one of three conditions: ▲recipients of livelihood or medical benefits among basic livelihood recipients, ▲ single-parent families eligible for protection, or ▲ elderly individuals aged 65 or older who are basic livelihood recipients or belong to the near-poverty group. Foreign nationals cannot apply.

*Where to apply? : You can apply by visiting the Administrative Welfare Center in your residential area. Once you receive notification from the center that you have been selected as a tenant, you can find a house of your choice. Applications are accepted on an ongoing basis until the 'Application Closure' is announced. For more details, please contact the GH Jeonse Rental Call Center (1588-8056) or visit the Gyeonggi Housing & Urban Development Corporation website (https://gh.or.kr).

Gyeonggi Province expects that this rolling recruitment will allow low-income households who missed the regular recruitment period or are in urgent need of housing support to apply for Jeonse rental housing when they need it.

Kim Tae-soo, Head of the Housing Policy Division of Gyeonggi Province, stated, "We will strengthen efforts to identify eligible recipients and provide guidance in cooperation with cities, counties, and GH so that residents in need of housing support can live stably in their desired areas." 〈한글 기사 1면〉

파파야스토리

จังหวัดคยองกี, เปิดรับสมัครผู้เข้าพักโครงการการเช่าที่อยู่อาศัยเดิมแบบเงินประกันจอนเซ สำหรับประชาชนที่มีรายได้น้อยอย่างต่อเนื่อง 경기도, 저소득 도민 대상 기존주택 전세임대 입주자 상시 모집

จังหวัดคยองกีและบริษัทเคหะและเมืองคยองกี (GH) เปิดรับสมัครผู้เข้าพัก "โครงการการเช่าที่อยู่อาศัยเดิมแบบเงินประกันจอนเซ ปี 2026" ตั้งแต่วันที่ 4 สิงหาคม เป็นต้นไป โดยเปิดรับสมัครอย่างต่อเนื่อง เพื่อช่วยสร้างความมั่นคงด้านที่อยู่อาศัยให้แก่ผู้มีรายได้น้อยในจังหวัด

*โครงการการเช่าที่อยู่อาศัยเดิมแบบเงินประกันจอนเซ คืออะไร? : โครงการการเช่าที่อยู่อาศัยเดิมแบบเงินประกันจอนเซ เป็นหนึ่งใน ระบบสวัสดิการด้านที่อยู่อาศัยที่หลากหลายของเกาหลีใต้ โดยเมื่อผู้สมัครได้รับการคัดเลือกให้เข้าร่วมโครงการและเลือกบ้านที่ต้องการ พักอาศัยแล้ว GH จะทำสัญญาเช่าแบบเงินประกันจอนเซกับเจ้าของบ้าน จากนั้นจึงนำบ้านดังกล่าวมาให้ผู้เข้าร่วมโครงการเช่าต่อ

*ค่าเช่าถูกไหม? : เงื่อนไขการเช่าถือว่าค่อนข้างดี โดย GH จะช่วยสนับสนุนเงินประกันการเช่าแบบจอนเซ สูงสุด 95% ภายในวงเงินไม่เกิน 130 ล้านวอน ผู้เข้าพักจะจ่ายค่าเช่าในอัตราต่ำประมาณ 1.2~2.2% ต่อปีให้แก่ GH สำหรับจำนวนเงินที่ได้รับการสนับสนุน ผู้เข้าพักสามารถ อาศัยอยู่ได้อย่างมั่นคงเป็นระยะเวลาสูงสุด 30 ปี

*ใครสามารถสมัครได้บ้าง? : ผู้มีรายได้น้อยที่อาศัยอยู่ในจังหวัดคยองกีและครอบครัวพหุวัฒนธรรมสามารถสมัครได้ โดยอันดับแรก ต้องเป็นสมาชิกในครัวเรือนที่ไม่มีที่อยู่อาศัยเป็นของตนเองและอาศัยอยู่ในจังหวัดคยองกี นอกจากนี้ ต้องมีคุณสมบัติตรงตามเงื่อนไข อย่างใดอย่างหนึ่งจาก 3 ข้อต่อไปนี้ ได้แก่ ▲ผู้รับสวัสดิการดำรงชีพหรือสวัสดิการค่ารักษาพยาบาลในกลุ่มผู้รับสวัสดิการดำรงชีพขั้นพื้นฐาน ▲ครอบครัวเลี้ยงเดี่ยวที่อยู่ภายใต้การคุ้มครอง ▲ผู้สูงอายุอายุ 65 ปีขึ้นไป ที่เป็นผู้รับสวัสดิการดำรงชีพขั้นพื้นฐานหรืออยู่ในกลุ่มผู้มีรายได้ ต่ำกว่าเกณฑ์ เป็นต้น ทั้งนี้ ชาวต่างชาติไม่สามารถสมัครได้

*สมัครได้ที่ไหน? : สามารถสมัครได้โดยไปยื่นใบสมัครที่ศูนย์บริการสวัสดิการและการบริหารของเขตพื้นที่ที่พักอาศัย หลังจากได้รับแจ้ง จากศูนย์บริการสวัสดิการและการบริหารว่าได้รับการคัดเลือกเป็นผู้เข้าพักแล้ว จึงจะสามารถหาบ้านที่ต้องการได้ เปิดรับสมัครอย่างต่อเนื่อง จนกว่าจะมีประกาศ "ปิดรับสมัคร" โดยสามารถตรวจสอบรายละเอียดเพิ่มเติมได้ที่ศูนย์บริการข้อมูลเฉพาะโครงการเช่าบ้านแบบเงินประกัน จอนเซของ GH (โทร.1588-8056) หรือเว็บไซต์ของบริษัทเคหะและเมืองคยองกี(https://gh.or.kr)

จังหวัดคยองกีคาดหวังว่าการเปิดรับสมัครอย่างต่อเนื่องในครั้งนี้จะช่วยให้ครัวเรือนผู้มีรายได้น้อยที่พลาดช่วงเวลารับสมัครตามกำหนด หรือมีความจำเป็นเร่งด่วนด้านที่อยู่อาศัย สามารถสมัครเข้าร่วมโครงการบ้านเช่าแบบเงินประกันจอนเซได้ในช่วงเวลาที่ต้องการ

คิม แทซู ผู้อำนวยการฝ่ายนโยบายที่อยู่อาศัยจังหวัดคยองกี กล่าวว่า "เพื่อให้ประชาชนในจังหวัดที่ต้องการความช่วยเหลือด้านที่อยู่อาศัย สามารถใช้ชีวิตได้อย่างมั่นคงในพื้นที่ที่ต้องการ เราจะร่วมมือกับเทศบาลและอำเภอต่างๆ รวมถึง GH เพื่อเพิ่มการค้นหาผู้ที่มีคุณสมบัติ เข้าร่วมโครงการและประชาสัมพันธ์ข้อมูลให้ทั่วถึงยิ่งขึ้น"

〈한글 기사 1면〉

파파야스토리



온가족보듬사업 긴급위기가정 지원 협의

광주시가족센터, 유관기관·협의체 사례회의 개최해

광주시가족센터(센터장 이수희)는 8월 6일 긴급위기가정의 복합적인 어려움을 해소하고 지역사회 협력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온가족보듬사업 유관기관 협의체 사례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총 5개 유관기관의 기관장과 실무자가 참석해 긴급위기가정 사례를 공유하고, 대상자의 복합적인 욕구에 따른 지원 현황과 향후 개입 방향을 논의하며 지역사회 자원 연계 및 통합사례관리 방안을 모색했다.

특히 대상자의 현재 상황과 욕구를 중심으로 장애인 복지 및 사례관리 분야의 유관기관들과 함께 지원 방향과 기관별 개입 계획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이를 통해 각 기관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대상자에게 적합한 통합사례관리 방안을 수립하고, 기관 간 역할을 조율했다.

이수희 센터장은 "복합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위기가정은 한 기관의 노력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유지하며 대상자 중심의 통합사례관리를 통해 필요한 지원이 적시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시가족센터는 온가족보듬사업을 통해 다양한 가족의 복합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맞춤형 가족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송하성 기자

광주시, 다문화 어린이 대상 독서·문화 프로그램 운영해요

광주시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는 '2026년 도서관 다문화 서비스 지원사업'에 선정돼 오는 9월 15일부터 10월 28일까지 다문화 어린이를 대상으로 독서·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다문화 가정 어린이와 가족의 균등한 독서 기회를 확대하고 다문화 이해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운영 프로그램은 유아(6~7세) 대상 다문화 독서프로그램 '지구별 그림책 탐험 A', 초등학교 1~3학년 대상 다문화 독서프로그램 '지구별 그림책 탐험 B', 초등학교 1~3학년 대상 세계문화·놀이 프로그램 '세계놀이&보드게임', 부모와 초등학교 1~3학년 자녀가 함께 참여하는 한국 전통 디저트 만들기 프로그램 '우리가족 K-공작소' 등 4개 강좌다. 신청 대상은 광주시에 거주하는 다문화 가정이며 오는 28일까지 중앙도서관으로 전화(031-760-5965)로 신청하면 된다.

도서관 관계자는 "앞으로도 다양한 언어와 문화의 장벽을 넘어 모든 시민이 함께할 수 있는 다양한 독서·문화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프로그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광주시 도서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송하성 기자

지역사회 협력 확대 업무협약

광주시가족센터와 국제사이버대학교, 체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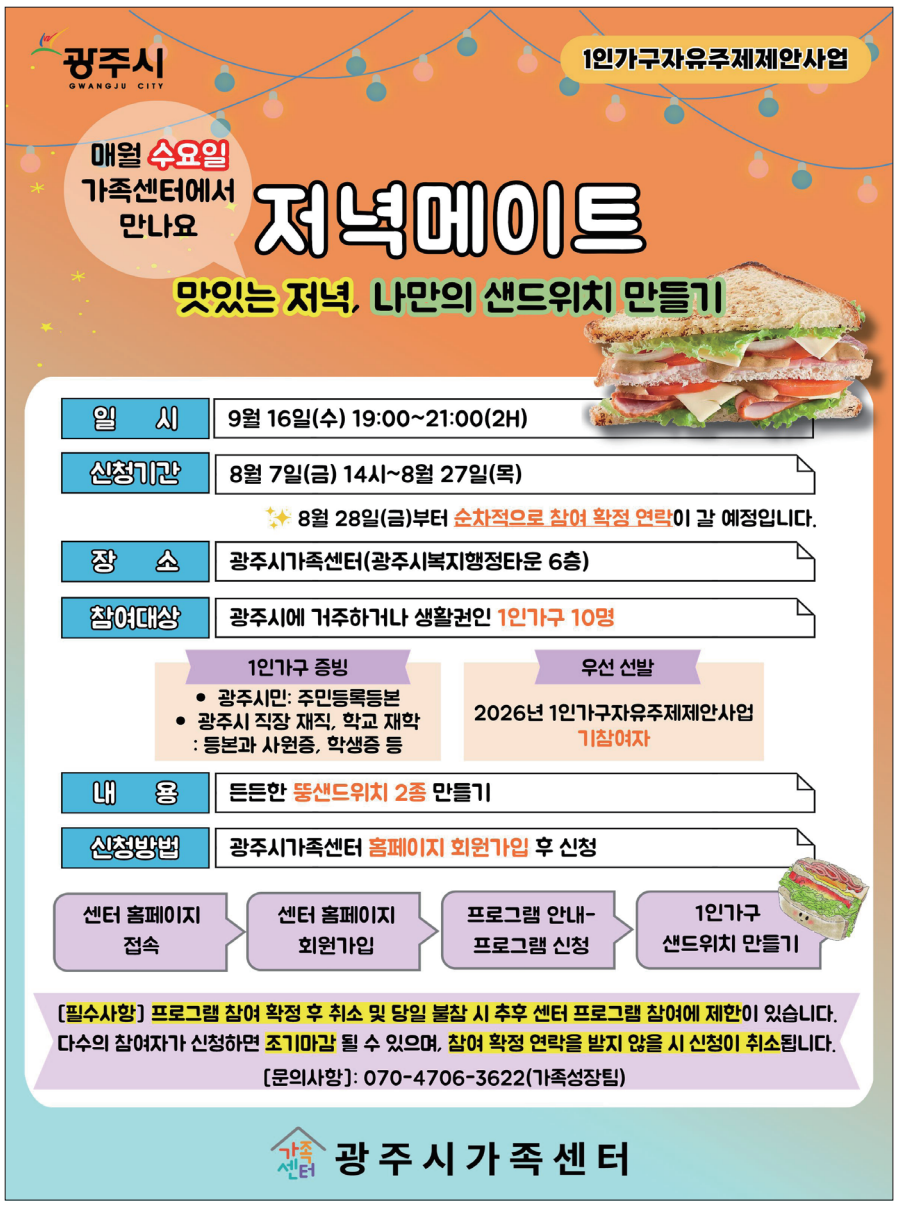
광주시가족센터(센터장 이수희)는 7월 30일(목) 14시, 국제사이버대학교(총장 이경우)와 지역사회 협력 확대 및 가족·지역주민의 복지 증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양 기관이 보유한 인적·물적 자원을 바탕으로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가족과 지역주민을 위한 다양한 사업과 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상호 발전을 위한 교육 및 연구 개발 ▲기관 간 교류 및 지원 ▲대외 홍보 협력 ▲기타 상호 발전과 우호 증진을 위한 협력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지속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지역사회에 필요한 교육과 복지서비스를 함께 발굴하고, 가족과 지역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광주시가족센터 관계자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국제사이버대학교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가족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기관과의 협력을 확대하여 가족과 지역주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광주시가족센터는 지역사회 가족의 건강한 삶과 가족 기능 강화를 위해 가족교육, 가족상담, 가족문화, 공동육아나눔터, 온가족보듬사업 등 다양한 가족지원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인터넷에서 파파야스토리를 검색하세요, 더 다양한 정보를 만날 수 있어요〉 송하성 기자









양평군가족센터, 2026년 다문화엄마학교 2기 전원 졸업...다문화 엄마의 교육 역량 높이다

양평군가족센터(센터장 박우영)는 지난 8월 9일 행복플러스센터 4층 대회의실에서 '다문화엄마학교 양평 2기 졸업식'을 개최했다.

이번 졸업식에는 입학생 10명 전원이 국어, 수학, 사회, 과학, 역사, 도덕, 실과 등 초등학교 고학년 수준의 전 교육과정을 우수한 성적으로 이수하며 졸업장을 받았다.

특히 한국어가 익숙하지 않은 결혼이주여성들이 언어의 장벽을 넘어 초등 고학년 수준의 교과과정을 성실히 학습하고 우수한 성과를 거뒀다는 점에서 참석자들의 큰 박수를 받았다.

올해 2기에는 중국과 베트남뿐 아니라 필리핀, 콜롬비아, 라오스, 우즈베키스탄 등 다양한 국적의 결혼이주여성이 참여했다.

참가자들은 서로 다른 문화와 언어적 환경 속에서도 배움에 대한 열정으로 모든 교육과정을 완주하며 다문화가정 부모로서의 교육역량을 한층 높였다. 다문화엄마학교는 단순한 학습 프로그램이 아니라 결혼이주여성이 자녀의 학습을 직접 지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부모교육 프로그램이다. 참가자들은 초등학교 고학년 수준의 교과를 학습하며 자녀와 함께 공부하는 방법을 익히고, 가정에서의 학습 지도를 통해 사춘기 자녀와의 소통을 늘리고 부모와 자녀 간 유대감을 강화할 수 있다.

특히 이번 2기 사업은 지난해 양평군가족센터와 한마음교육봉사단이 공동 기획해 운영한 1기에서 한 단계 더 발전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더했다.

올해는 양평군이 행정적 지원을 확대하고, 예강희망키움재단이 태블릿PC를 후원하는 등 지역사회가 함께 결혼이주여성의 성장을 응원하며 프로그램의 안정적인 운영 기반을 마련했다.

민·관이 함께 만든 이러한 협력은 교육환경을 더욱 향상시키고 참가자들의 학습 의지를 북돋우며 2기 전원 수료라는 값진 성과로 이어졌다. 이번 졸업식에서는 졸업증서 수여와 함께 시상도 진행됐다. 학업 성취도가 가장 우수한 교육생에게 최우수상과 우수상이 수여됐으며, 자녀의 학습을 성실히 지도하고 정서적 공감을 바탕으로 교육에 참여한 교육생에게는 자녀학습지도 최우수상과 우수상이 각각 수여됐다.

또한 1기와 2기를 모두 성실히 이수한 교육생에게는 특별상을 수여하고 장학생으로 위촉해 지속적인 성장을 응원하는 뜻깊은 시간도 마련됐다.

박우영 센터장은 "한국어가 익숙하지 않은 상황에서도 초등학교 고학년 수준의 교육과정을 성실히 이수하고 우수한 성과를 거둔 2기 졸업생 여러분께 진심으로 축하와 존경의 마음을 전한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 다문화엄마학교를 지속적으로 운영해 결혼이주여성의 교육역량을 높이고 자녀와 함께 성장하는 대표 교육사업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송하성 기자

양평도서관, 9월 독서의 달 뮤지컬, 독서토론 등 전 세대 맞춤 독서문화 행사 운영

양평군(군수 전진선)은 9월 독서의 달을 맞아 양평도서관에서 어린이부터 성인까지 전 연령층이 함께 즐길 수 있는 공연과 강연 등 다채로운 독서문화 행사를 운영한다.

이번 행사는 지역 주민의 독서문화 확산과 도서관 이용 활성화를 위해 마련됐으며, 세대별 특성을 반영한 다양한 독서·문화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유아와 어린이를 대상으로는 환경·생태 뮤지컬 '나 좀 도와줘!', 어린이 독서 장려 뮤지컬 '동화 속 친구들과 함께하는 이야기 구출 대작전', 책을 매개로 독서의 즐거움을 전하는 '리딩ON경기 게릴라 매직쇼'가 진행된다. 청소년을 위해서는 VR 기기를 활용한 몰입형 독서토론 프로그램 'VR활용 독서토론'이 운영된다. 성인 대상으로는 〈365일 가슴 설레며 사는 법〉을 주제로 한 '고명환 작가와의 만남'과 도서관 야외테라스에서 열리는 인문학 야외 강연 '물빛서재: 한 잔으로 만나는 와인 이야기'가 준비됐다.

이 외에도 전문 국악공연팀 '위아츠'를 초청해 남녀노소 누구나 함께 즐길 수 있는 '찾아가는 문화복지공연'을 선보이며, 양평군 도서관 정회원을 대상으로 과월호 정기간행물 및 폐기예정도서 무료로 배부하는 '북(Book)적북적 나눔장터' 행사도 운영할 예정이다. 행사 기간 동안 이용자 혜택도 강화된다. 도서 대출 권수를 기존의 2배로 확대하고, 연체자의 대출 정지를 해제해 주는 실질적인 이용 편의를 제공한다.

모든 공연과 강연은 사전 신청을 통해 참여할 수 있으며, 접수는 8월 18일부터 홍보물에 안내된 정보무늬(QR코드)를 통해 온라인 선착순으로 진행된다. 프로그램별 운영 일정과 세부 접수 일정은 양평도서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전진선 양평군수는 "9월 독서의 달을 맞아 준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주민들이 도서관을 한층 친숙한 문화공간으로 느끼고, 책과 함께하는 즐거움과 풍성한 문화 경험을 누리길 바란다"고 말했다.

송하성 기자

'일상에 스며든 예술, 이웃과 함께 빛다'

하남시가족센터, 글라스아트 프로그램 '빛의조각' 성료

하남시가족센터(센터장 문병용)는 지난 5월 13일부터 7월 22일까지 하남시민을 대상으로 다목적가족소통교류공간 상시프로그램 '빛의조각'을 운영했다. 지역 주민들의 큰 호응 속에 운영된 이번 프로그램은 글라스아트 공예를 매개로 참여자들의 자기표현과 정서적 치유를 지원하고, 이웃 간 자연스러운 소통과 교류를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빛의조각'은 올해 2월 실시한 다목적가족소통교류공간 주민 수요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기획됐다. 조사에서 '인테리어 소품 만들기'가 높은 선호도를 보인 점을 반영하여, 미사 지역에서는 쉽게 접하기 어려운 글라스아트 과정을 신규 도입했다. 또한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하는 열린 공간인 다목적가족소통교류공간에서 운영함으로써 프로그램 참여자뿐 아니라 방문 시민들도 작품을 함께 감상하며 공간의 가치를 공유할 수 있도록 했다.

프로그램은 총 10회기에 걸쳐 전등갓 조명, 도어벨, 썬캐처, 휴지케이스, 방패시계 등 다양한 생활소품을 제작하는 실습 중심 교육으로 진행됐다. 참여자들은 작품을 완성하는 과정에서 성취감을 경험하는 것은 물론, 서로의 작품을 응원하고 의견을 나누며 자연스럽게 관계를 형성했다.

이를 통해 참가자들은 외로움 감소와 삶의 만족감, 스트레스 완화 등 정서적 영역에서 긍정적인 변화를 일으켰다. 한 참여자는 "엄마만의 시간이 필요했는데, 수업을 통해 에너지가 채워졌다."고 전했으며, 또 다른 참여자는 "유리아트 작품을 이렇게 쉽게 만들 수 있어 성취감을 느꼈고, 10번의 수업이 매번 힐링되는 시간이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문병용 센터장은 "빛의조각은 단순한 공예 프로그램을 넘어 주민들이 예술을 통해 자신을 표현하고 서로를 이해하며 관계를 만들어가는 과정"이라며 "앞으로도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한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누구나 머물고 소통할 수 있는 다목적가족소통교류공간을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이지은 기자





하남시가족센터, 다문화요리동아리 '음식으로 나누는 세계 문화' 운영

하남시가족센터는 결혼이민자들의 자조모임 활성화와 지역사회 문화교류를 위해 4월부터 9월까지 다문화동아리 사업을 운영한다. 그중 다문화요리동아리는 음식을 매개로 다양한 문화가 어우러지는 교류의 장을 마련하고 있다.

이 동아리는 격주 화요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운영되며, 참여자들이 한국 음식과 세계 각국의 음식을 함께 만들고 음식에 담긴 문화와 추억을 나누며 서로를 이해하는 활동이다.

특히 결혼이민자들이 한국 식문화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가정에서 활용할 수 있는 요리를 배우는 동시에, 각국의 식문화를 소개하며 자신의 문화를 자랑스럽게 공유하고 있다.

지난 7월 14일에는 한국 가정식인 된장찌개, 제육볶음, 콩나물무침을 함께 만들었다. 참여자들은 직접 만든 음식을 가족과 함께 나누었으며, "가족들이 맛있게 먹어주어 뿌듯했다", "배운 요리를 집에서도 자신 있게 만들어 볼 수 있게 됐다"는 소감을 전했다. 이러한 활동은 한국 음식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것은 물론, 가족들과 식탁을 함께하며 만족감을 높였다.

이어 7월 28일에는 말레이시아의 전통 디저트 부부르차차(Bubur Cha Cha)를 만들었다. 코코넛밀크와 고구마, 타로, 사고(타피오카) 등을 활용한 이색적인 디저트를 함께 만들며 익숙하지 않은 식문화를 경험하고, 각 나라의 음식과 문화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다.

이지은 기자

"건강한 일상과 이웃을 만나는 시간" 하남시가족센터, 1인가구 건강돌봄 프로그램



하남시가족센터(센터장 문병용)는 1인가구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 증진과 건강한 일상생활 지원을 위해 2026년 1인가구지원사업 「건강돌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건강돌봄 프로그램은 생애주기별 특성을 반영하여 노년층, 중장년층, 청년층으로 대상을 구분해 각 연령대별 9회기 과정으로 운영된다. 지난 6월 노년층 프로그램에 이어, 7월부터 8월까지는 중장년층 1인가구를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으며, 총 14명의 참여자가 함께하고 있다. 이번 중장년층 건강돌봄 프로그램은 바쁜 일상 속 자신을 돌아보고 건강한 생활습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자기돌봄 교육 ▲신체 건강 증진을 위한 요가 및 바레(Barre) 운동 ▲심리적 안정과 정서 회복을 위한 치유원예 프로그램 등 다양한 내용으로 구성되었다. 참여자들은 신체활동과 정서지원 프로그램을 함께 경험하며 건강한 자기관리 능력을 키우고, 같은 지역에 거주하는 1인가구와 자연스럽게 교류하며 사회적 관계망을 형성하는 시간을 갖고 있다.

특히 이번 프로그램은 단순한 건강관리 교육을 넘어 신체와 마음을 함께 돌보는 통합형 건강증진 프로그램으로 운영되고 있다. 참여자들은 규칙적인 신체활동과 자기돌봄 실천을 통해 건강한 생활습관을 형성하는 것은 물론, 프로그램을 매개로 새로운 이웃과 소통하며 정서적 안정감과 소속감을 느끼는 등 긍정적인 변화를 경험하고 있다.

한 참여자는 "일상생활 속 마음돌봄과 신체건강을 주제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경험할 수 있어 건강한 자기관리에 많은 도움이 된다"며 "무엇보다 프로그램을 통해 새로운 이웃들을 만나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어 매회 수업이 기다려진다. 앞으로도 1인가구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지속적으로 운영되기를 기대한다"고 소감을 전했다.

문병용 센터장은 "1인가구가 증가하는 사회적 변화에 맞춰 신체적 건강뿐 아니라 정서적 안정과 사회적 관계 형성을 함께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생애주기별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건강돌봄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1인가구가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031-793-2993

이지은 기자

“Người nước ngoài cũng đừng quên yêu cầu bồi thường từ Bảo hiểm Khí hậu nếu phải đi khám, điều trị do nắng nóng.” 외국인도 보장받는 경기기후보험

Nếu là cư dân nước ngoài tại tỉnh Gyeonggi bị ảnh hưởng sức khỏe do các thảm họa khí hậu như nắng nóng cực đoan hoặc mưa lớn, đừng bỏ lỡ quyền lợi từ "Bảo hiểm Khí hậu Gyeonggi (Gyeonggi Climate Insurance)".

Theo Hệ thống giám sát ca bệnh do nắng nóng tại các khoa cấp cứu của Cơ quan Kiểm soát và Phòng ngừa Dịch bệnh Hàn Quốc (KDCA), tính đến ngày 6/7 năm nay, tỉnh Gyeonggi ghi nhận 115 ca mắc bệnh do nắng nóng, tăng khoảng 11% so với 104 ca trong cùng kỳ năm ngoái.

Trong bối cảnh dự báo mưa lớn kéo dài trong mùa mưa và các đợt nắng nóng gay gắt sẽ tiếp diễn, số người gặp các vấn đề sức khỏe trong mùa hè, bao gồm bệnh do nắng nóng, cũng có khả năng gia tăng.

Bảo hiểm Khí hậu Gyeonggi là chương trình bảo hiểm bồi thường thiệt hại sức khỏe do biến đổi khí hậu, với toàn bộ phí bảo hiểm do tỉnh Gyeonggi chi trả. Công dân tỉnh Gyeonggi, người nước ngoài đã đăng ký cư trú và kiều bào mang quốc tịch nước ngoài đang sinh sống trong tỉnh được tự động tham gia mà không cần làm thủ tục đăng ký riêng. Thời hạn bảo hiểm áp dụng từ ngày 11/4/2026 đến ngày 10/4/2027.

Các quyền lợi bảo hiểm chính gồm:

150.000 won tiền hỗ trợ khi được chẩn đoán bệnh do nắng nóng.

100.000 won hỗ trợ chi phí đến khoa cấp cứu do bệnh liên quan đến nắng nóng, rét đậm hoặc tai nạn do thiên tai, khí hậu.

300.000 won tiền hỗ trợ an ủi đối với tai nạn do thiên tai, khí hậu, áp dụng cho người được chẩn đoán điều trị từ 4 tuần trở lên do tai nạn liên quan đến cảnh báo thời tiết hoặc thiên tai.

200.000 won hỗ trợ khi được chẩn đoán mắc bệnh truyền nhiễm liên quan đến khí hậu.

Trong năm nay, việc chi trả tiền bảo hiểm thông qua Bảo hiểm Khí hậu Gyeonggi vẫn đang được tiếp tục thực hiện. Tính đến ngày 7/7 năm nay, tỉnh Gyeonggi đã chi trả tổng cộng 136 trường hợp tiền bảo hiểm, bao gồm:

14 trường hợp chi trả phí chẩn đoán bệnh do nắng nóng, 6 trường hợp chi trả chi phí đến khoa cấp cứu, 32 trường hợp chi trả phí chẩn đoán bệnh truyền nhiễm, 84 trường hợp chi trả chi phí điều trị ngoại trú tại cơ sở y tế. Theo các trường hợp được chi trả bảo hiểm thực tế, có những trường hợp như: học sinh được chẩn đoán mắc bệnh do nắng nóng trong buổi học trải nghiệm ngoài trời, người dân phải đến bệnh viện do có triệu chứng kiệt sức vì nóng trong khi tham gia hoạt động thể thao, nông dân được chẩn đoán mắc bệnh do nắng nóng trong quá trình làm cỏ và canh tác nông nghiệp, hay người dân phải sử dụng dịch vụ cấp cứu do mắc bệnh do nắng nóng sau các hoạt động ngoài trời.

Tiền bảo hiểm có thể được yêu cầu chi trả trong vòng 3 năm kể từ ngày xảy ra tai nạn hoặc ngày được chẩn đoán bệnh.

Để biết thêm thông tin chi tiết về nội dung bảo hiểm và cách thức yêu cầu chi trả, có thể liên hệ Tổng đài Bảo hiểm Khí hậu Gyeonggi (02-2078-4548) hoặc tra cứu trên kênh KakaoTalk “경기 기후보험 (Bảo hiểm Khí hậu Gyeonggi)”.

Ông Park Dae-geun, Trưởng phòng An toàn Sức khỏe Môi trường của tỉnh Gyeonggi, cho biết: 〈중략, 한글 기사 23면〉

파파야스토리

“ชาวต่างชาติก็อย่าลืมใช้สิทธิประกันภัยสภาพภูมิอากาศ หากต้องเข้ารับการรักษาในโรงพยาบาลจากภาวะอากาศร้อน”

หากมีชาวต่างชาติที่อาศัยอยู่ในจังหวัดคยองกีได้รับความเสียหายด้านสุขภาพจากภัยพิบัติทางสภาพอากาศ เช่น คลื่นความร้อนและ ฝนตกหนัก ขออย่าพลาดสิทธิประโยชน์จาก “ประกันภัยสภาพภูมิอากาศจังหวัดคยองกี

จากข้อมูลของระบบเฝ้าระวังผู้ป่วยโรคลมแดดที่เข้ารับการรักษาในห้องฉุกเฉินของสำนักงานควบคุมและป้องกันโรคแห่งเกาหลี พบว่า ในปีนี้ (ข้อมูลถึงวันที่ 6 กรกฎาคม) จังหวัดคยองกีมีผู้ป่วยโรคลมแดดจำนวน 115 คน เพิ่มขึ้นประมาณ 11% จากช่วงเวลาเดียวกันของปีที่แล้ว ที่มี 104 คน โดยคาดว่าฝนตกหนักในช่วงฤดูฝนและคลื่นความร้อนที่กำลังทวีความรุนแรงจะทำให้จำนวนผู้ได้รับผลกระทบด้านสุขภาพในช่วง ฤดูร้อน รวมถึงผู้ป่วยโรคลมแดด มีแนวโน้มเพิ่มขึ้นด้วย

ประกันภัยสภาพภูมิอากาศของจังหวัดคยองกี เป็นโครงการคุ้มครองความเสียหายด้านสุขภาพจากภัยพิบัติทางสภาพอากาศ โดยจังหวัด คยองกีเป็นผู้รับผิดชอบค่าเบี้ยประกันทั้งหมด ผู้ที่มีสิทธิ ได้แก่ ประชาชนที่อาศัยอยู่ในจังหวัดคยองกี, ชาวต่างชาติที่ขึ้นทะเบียนพำนัก ในจังหวัด และชาวเกาหลีเชื้อสายต่างชาติ โดยจะได้รับความคุ้มครองโดยอัตโนมัติ ไม่ต้องดำเนินการสมัคร ทั้งนี้ ระยะเวลาความคุ้มครองคือ เริ่มตั้งแต่วันที่ 11 เมษายน 2026 ถึง วันที่ 10 เมษายน 2027 สิทธิประโยชน์หลักของประกันภัย ได้แก่ เงินชดเชยกรณีได้รับการวินิจฉัยว่าเป็น โรคลมแดด จำนวน 150,000 วอน, เงินชดเชย 100,000 วอน สำหรับการเข้ารับการรักษาที่ห้องฉุกเฉิน เนื่องจากโรคลมแดด•โรคจากอากาศหนาว•หรืออุบัติเหตุที่เกิดจากภัยพิบัติทางสภาพอากาศ,

เงินเยียวยากรณีได้รับอุบัติเหตุจากภัยพิบัติทางสภาพอากาศ 300,000 วอน สำหรับผู้ที่ได้รับการวินิจฉัยให้รักษาตัว ตั้งแต่ 4 สัปดาห์ขึ้นไป อันเป็นผลจากประกาศเตือนภัยสภาพอากาศหรือภัยพิบัติทางธรรมชาติ, เงินชดเชยกรณีได้รับการวินิจฉัยว่าเป็น โรคติดเชื้อที่เกี่ยวข้องกับ สภาพภูมิอากาศ จำนวน 200,000 วอน ในปีนี้มีการจ่ายค่าสินไหมทดแทนผ่านประกันภัยสภาพภูมิอากาศของจังหวัดคยองกี อย่างต่อเนื่อง โดยข้อมูล ณ วันที่ 7 กรกฎาคม จังหวัดคยองกีได้จ่ายเงินประกันรวม 136 รายการ ประกอบด้วย ค่าชดเชยกรณีได้รับการวินิจฉัยว่าเป็นโรคลมแดด 14 ราย, ค่าชดเชย การเข้ารับการรักษาที่ห้องฉุกเฉิน 6 ราย, ค่าชดเชยกรณีได้รับการวินิจฉัยโรคติดเชื้อ 32 ราย, ค่าชดเชยค่ารักษาพยาบาลผู้ป่วยนอก 84 ราย

ตัวอย่างผู้ที่ได้รับเงินชดเชยจริง ได้แก่ นักเรียนที่ได้รับการวินิจฉัยว่าเป็นโรคลมแดดระหว่างการเข้าร่วมกิจกรรมทัศนศึกษานอกสถานที่, ประชาชนที่เข้ารับการรักษาในโรงพยาบาลเนื่องจากอาการอ่อนเพลียจากความร้อนระหว่างการเล่นกีฬา, เกษตรกรที่ได้รับการวินิจฉัยว่าเป็น โรคลมแดดระหว่างการตัดหญ้าหรือทำงานในไร่นา, และประชาชนที่ต้องเข้ารับการรักษาในห้องฉุกเฉินหลังเกิดภาวะโรคลมแดดจากการ ทำกิจกรรมกลางแจ้ง เป็นต้น

ผู้เอาประกันสามารถยื่นขอรับเงินค่าสินไหมทดแทนได้ภายใน 3 ปี นับจากวันที่เกิดเหตุหรือวันที่ได้รับการวินิจฉัยโรค โดยสามารถตรวจสอบ รายละเอียดความคุ้มครองและวิธีการยื่นคำขอได้ที่ ศูนย์บริการประกันภัยสภาพภูมิอากาศจังหวัดคยองกี (โทร. 02-2078-4548) หรือผ่านช่อง KakaoTalk “ประกันภัยสภาพภูมิอากาศจังหวัดคยองกี(경기 기후보험)”

พัค แดกึน ผู้อำนวยการกองสิ่งแวดล้อม สุขภาพและความปลอดภัย จังหวัดคยองกี กล่าวว่า “จากวิกฤตสภาพภูมิอากาศ ภัยพิบัติที่เกิดขึ้น ในช่วงฤดูร้อน เช่น คลื่นความร้อนและฝนตกหนัก〈중략, 한글 23면〉

QR코드 스캔 후 파파야스토리 홈페이지 우측 상단의 국기를 선택해 언어를 변경하세요.

과학에 대한 흥미와 호기심 키우며 여름 추억 만들어요

광명시가족센터, 국립과천과학관과 함께하는 '여름밤 별빛 과학캠프'



광명시가족센터(센터장 남은정)는 지난 8월 5일, 과천국립과학관에서 광명시 거주 다문화가족을 대상으로 「8월 가족사랑의 날-여름밤 별빛 과학캠프」를 진행했다.

국립과천과학관과 함께하는 과학나눔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된 이번 과학캠프는 여름방학을 맞아 가족이 함께 과학을 체험하고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참여 가족들은 과학관의 다양한 전시와 프로그램을 경험하며 과학에 대한 흥미와 호기심을 키우고, 가족과 함께 특별한 여름방학 추억을 만들었다.

참가자들은 국립과천과학관의 다양한 전시관을 관람하며 일상에서 접하기 어려운 과학기술과 원리를 직접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과학공연과 강연을 통해 과학적 원리를 쉽고 재미있게 이해하고, 우주와 과학에 대한 호기심을 키웠으며 참여 아동들이 평소 궁금했던 과학적 질문도 함께 생각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후 진행된 천체관측 프로그램에서는 여름밤의 하늘을 바라보며 천체를 직접 관찰했다. 낮부터 밤까지 이어진 과학 체험을 통해 참여 가족들은 과학을 보다 친숙하게 접하고 가족과 함께 하는 즐거움을 느낄 수 있었다.

이번 프로그램에 참여한 가족들은 "아이와 함께 과학관을 방문할 기회가 생겨 좋았고,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어 즐거웠다", "평소 쉽게 접하기 어려운 천체관측을 가족과 함께 경험할 수 있어 특별했다", "별자리 관측 및 설명에서 별자리의 이름과 위치를 알게 되었고, 과학 공연에서 과학 실험의 과학적 원리를 배울 수 있어 좋았다." 등의 소감을 전했다.

남은정 센터장은 "아이들이 과학을 어렵게만 생각하지 않고 직접 보고, 듣고, 체험하며 과학에 대한 흥미와 호기심을 키울 수 있었다"며 "특히 가족이 함께 과학을 경험하고 이야기를 나누는 과정에서 가족 간 소통과 유대감을 높일 수 있었다"고 전했다.

한편, 광명시가족센터는 철산4동 생활문화복합센터(광명시 도덕공원로 52)로 이전하여 새로운 공간에서 다양한 가족지원 프로그램과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이지은 기자







하반기 반려동물 문화교실 모집해

광명시(시장 박승원)가 올바른 반려문화 정착과 반려생활 정보 제공을 위해 '2026년 하반기 반려동물 문화교실' 참여자를 모집한다.

이번 하반기 문화교실은 '3주간 행동교정교육', '그룹 산책교육', '원데이클래스' 등 3개 분야로 나눠 진행한다.

가장 먼저 시작하는 '행동교정교육'은 9월 4일과 5일부터 3주간 광명시 반함센터에서 열린다.

평일·주말 참여자를 고려해 금요일반과 토요일반으로 나눠 개설하고 기수당 6명씩 총 36명을 모집해 반려견의 문제행동 예방과 보호자와의 교감 형성을 돕는 맞춤형 교육으로 진행한다.

이어 10월 17일에는 안양천 반려동물 놀이터에서 올바른 산책법과 사회화 교육을 배우는 '그룹 산책교육'(80명)을 마련한다. 반함센터에서는 9월 16일 '증멍프로필 촬영'(20명), 10월 8일 '수제간식 쿠킹클래스'(32명) 등 체험형 원데이 클래스도 운영한다.

참여 대상은 동물등록을 마친 광명시민과 반함센터 유기견 입양가족이며, 신청은 프로그램별 일정에 따라 구글폼에서 선착순으로 받는다. 행동교정교육과 증멍프로필 촬영은 8월 10일 오전 10시부터, 그룹 산책교육과 수제간식 쿠킹클래스는 9월 7일 오전 10시부터 신청할 수 있다. 원데이클래스는 중복 참여가 불가능하다. 이지은 기자

광명시 하안도서관, 한여름의 시린 문장…러시아 문학 거장의 깊이 있는 작품 한자리

광명시(시장 박승원) 하안도서관이 오는 8월 1일부터 27일까지 1층 커뮤니티 공간에서 '월간 작가전-한여름, 시린 문장 : 러시아 작가전(展)'을 개최한다. 이번 전시는 하안도서관의 독서문화 사업인 '북 다이브(DIVE)' 세계문학 릴레이 전시의 세 번째 순서다. 시민들에게 인간과 사회, 삶의 본질을 다룬 러시아 문학을 소개하고자 기획했다. 전시에서는 니콜라이 고골, 레프 톨스토이, 표도르 도스토옙스키, 안톤 체호프, 이반 투르게네프, 알렉산드르 푸슈킨, 막심 고리키, 미하일 불가코프 등 러시아 대표 작가들의 도서 50여 권을 선보인다.

사실주의 고전문학부터 단편소설, 희곡, 공상과학(SF)까지 다양한 장르를 아우르는 이번 전시작들은 인간의 고뇌와 사랑, 자유와 정의, 사회 현실을 담아낸 작품들이다. 전시와 더불어 시민 참여형 프로그램인 '하안켠, 문장 하안줌'도 함께 운영한다. 전시 도서 중 인상 깊은 문장을 따라 쓰는 필사 체험과 컬러링 체험을 마련해 시민들이 문학을 친숙하게 접하도록 했다.

한편, 하안도서관은 오는 10월까지 세계문학 릴레이 전시를 이어간다. 9월에는 유럽 문학, 10월에는 미국 문학을 주제로 각 지역 대표 작가와 작품을 순차적으로 소개할 예정이다.

김광용 하안도서관장은 "러시아 문학은 인간과 삶을 향한 깊은 질문을 던지는 작품"이라며 "많은 시민이 도서관을 찾아 러시아 문학의 깊이와 가치를 느끼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번 전시는 누구나 자유롭게 관람할 수 있다. 전시 도서는 1층 안내데스크에서 바로 대출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하안도서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지은 기자

"외국인도 폭염 때문에 병원 진료 받았다면 기후보험 잊지마세요"

경기도 온열질환자, 전년 대비 11% 증가...장마로 인한 건강 피해까지 보장



경기도가 폭염과 집중호우 등 기후재난으로 건강 피해를 입은 외국인주민이 있다면 '경기 기후보험' 혜택을 놓치지 말자.

질병관리청 온열질환 응급실감시체계에 따르면 올해(7월 6일까지) 경기도 온열질환자는 115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04명보다 약 11% 증가했다. 장마철 집중호우와 본격적인 폭염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온열질환 등 여름철 건강 피해도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경기 기후보험은 경기도가 보험료를 전액 부담하는 기후 건강피해 보장 제도다. 경기도민과 도내 등록외국인, 외국국적 동포는 별도 가입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되며, 보험기간은 2026년 4월 11일부터 2027년 4월 10일까지다.

주요 보장내용은 온열질환 진단비 15만 원, 온열·한랭질환 또는 기후재해 사고에 따른 응급실 내원비 10만 원, 기상특보·자연재해 관련 사고로 4주 이상 진단을 받은 경우 지급되는 기후재해 사고위로금 30만 원, 기후관련 감염병 진단비 20만 원 등이다.

올해 경기 기후보험을 통한 보험금 지급도 이어지고 있다. 경기도는 올해 7월 7일 기준으로 온열질환 진단비 14건, 응급실 내원비 6건, 감염병 진단비 32건, 의료기관 통원비 84건 등 총 136건의 보험금을 지급했다.

실제 지급 사례를 보면 야외체험학습 중 온열질환 진단을 받은 학생, 체육활동 중 열탈진 증상으로 병원을 찾은 도민, 제초작업과 농작업 중 온열질환 진단을 받은 농업인, 야외활동 후 온열질환으로 응급실을 이용한 도민 등이 있다.

보험금은 사고일 또는 진단일로부터 3년 이내 청구할 수 있다. 자세한 보장내용과 청구방법은 경기 기후보험 콜센터(02-2078-4548) 또는 카카오톡 채널 '경기 기후보험'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대근 경기도 환경보건안전과장은 "기후위기로 폭염과 집중호우 등 여름철 기후재난이 일상화되고 있다"며 "폭염이나 집중호우 등 기후재난으로 건강 피해를 입어 병원 진료를 받았다면 경기 기후보험 대상 여부를 꼭 확인해 필요한 지원을 받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베트남어 21면, 러시아어 하단, 태국어 21면〉 파파야스토리

«Если вы, как иностранец, обращались в больницу из-за сильной жары — не забудьте про климатическую страховку»

Если иностранные жители Кёнгидо пострадали от жары, сильных ливней или других климатических бедствий и получили ущерб здоровью, они могут воспользоваться льготами «Климатической страховки Кёнгидо». Фото: провинция Кёнгидо.

Согласно системе мониторинга пациентов с заболеваниями, связанными с жарой, которые обращаются в отделения неотложной помощи, в этом году (по состоянию на 6 июля) в Кёнгидо было зарегистрировано 115 случаев заболеваний, связанных с жарой. За аналогичный период прошлого года их было 104, то есть количество случаев выросло примерно на 11%. Ожидается, что в связи с продолжающимися проливными дождям и в сезон муссонов и наступлением сильной жары количество случаев ухудшения здоровья летом, включая тепловые заболевания, может увеличиться.

«Климатическая страховка Кёнгидо» — это программа страхового покрытия ущерба здоровью, причинённого климатическими бедствиями, при этом все страховые взносы полностью оплачивает провинция Кёнгидо. Жители Кёнгидо, зарегистрированные иностранцы, проживающие в провинции, а также этнические корейцы с иностранным гражданством автоматически становятся участниками программы без необходимости отдельной регистрации. Страховой период действует с 11 апреля 2026 года по 10 апреля 2027 года.

Основные виды страхового покрытия: 150 000 вон — выплата при диагностировании заболевания, связанного с жарой; 100 000 вон — компенсация за обращение в отделение неотложной помощи в связи с заболеванием, вызванным жарой или холодом, либо травмой вследствие климатического бедствия; 300 000 вон — компенсация при климатическом происшествии, если в результате происшествия, связанного с метеорологическим предупреждением или стихийным бедствием, поставлен диагноз со сроком лечения 4 недели и более; 200 000 вон — выплата при диагностировании инфекционного заболевания, связанного с климатическими условиями.

В этом году выплаты по «Климатической страховке Кёнгидо» уже производятся. По состоянию на 7 июля провинция Кёнгидо выплатила страховые компенсации по 136 случаям, в том числе 14 выплат за диагностику заболеваний, связанных с жарой, 6 выплат за посещение отделения неотложной помощи, 32 выплаты за диагностику инфекционных заболеваний и 84 выплаты за амбулаторное лечение.

Среди реальных случаев, по которым были произведены выплаты, — школьник, у которого во время выездной учебной программы диагностировали заболевание, связанное с жарой; житель провинции, обратившийся в больницу из-за симптомов теплового истощения во время занятий спортом; фермеры, получившие тепловые заболевания во время работы по покосу травы и сельскохозяйственных работ; а также жители, которым потребовалась помощь в отделении неотложной помощи после пребывания на улице.

Подать заявление на получение страховой выплаты можно в течение 3 лет с даты происшествия или постановки диагноза. Подробную информацию о страховом покрытии и способах подачи заявления можно получить в колл-центре «Климатической страховки Кёнгидо» по телефону 02-2078-4548 или через канал KakaoTalk «경기 기후보험» («Климатическая страховка Кёнгидо»).

Пак Дэ Гын, руководитель отдела экологического здравоохранения и безопасности провинции Кёнгидо, отметил: «Из-за климатического кризиса такие климатические бедствия, как сильная жара и проливные дожди, становятся частью нашей повседневной жизни. Если вы пострадали от жары, проливных дождей или другого климатического бедствия и обращались за медицинской помощью, обязательно проверьте, имеете ли вы право на получение выплат по климатической страховке Кёнгидо, и воспользуйтесь необходимой поддержкой». 〈한글 기사 상단〉

파파야스토리

다양한 가족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위해 광명시 가족센터 가 함께 합니다.

결혼이민자 통·번역 서비스 사업





서비스내용

광명시에 거주하는 **결혼이민자**, **다문화가족**, **외국인 가족** 등을 대상으로
일상생활에 필요한 **통·번역 서비스**를 무료 지원 합니다.

지원분야

✔개인 및 가족 간 의사소통 통역 지원

✔병원, 은행, 경찰서, 출입국관리사무소 등
공공기관 이용 시 동행 통역 지원 (공증 제외)

✔유치원·학교 가정통신문 등 교육 관련 통·번역 지원

✔다문화가족, 외국인가족 정보 제공

◎중국어 외 기타 언어번역 요청시 타 센터 번역의뢰 가능 (1주일 소요 예정)

이용방법

■ 지원 언어 : 중국어

■ 대상 : 다문화가족, 외국인, 재외동포 및 광명시 유관기관

■ 이용방법 : 전화 또는 내방신청
(유관기관의 경우 공문발송)
사전 예약(전화접수)는 필수입니다

■ 이용시간: 연중 월~금요일(9:00~17:00)

■문 의 : ☎02-6265-1366
(직통 : 070-4725-2719 담당자 이화)

광명시가족센터는 중국어 통·번역사가 상주 근무하고 있어 중국어 통·번역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고 있습니다.

가족센터 광명시가족센터



경기도

요즘 날씨에 더위 먹고 병원 다녀오셨나요?

열탈진 · 열사병 · 열경련
진단 시 **15만원 지급!**

경기도민이라면
조건 없이 100%
자동 가입!
(보험료 경기도 전액 부담)

이런 증상으로 치료받으셨다면 꼭 청구하세요!



열탈진 (땀을 뻘뻘 흘리며 탈수)
심한 갈증, 두통, 어지러움, 구토 증상으로 수액을 맞거나 치료받은 경우



열사병 / 일사병 (체온 상승과 실신)
높은 온도로 인해 정신이 혼미해지거나 쓰러져 병원 응급실에 간 경우



열경련 / 열실신 (근육 경련과 쥐)
폭염 속에서 활동하다가 팔, 다리, 복부 근육에 경련이 일어나 치료받은 경우

꼭 확인하세요!
병원에서 진단서나 소견서를 받으실 때
'온열질환 관련 질병코드'
(예 : T67)
가 적혀있으면 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6년 업그레이드 보장 일반 도민 기본 보장

온열질환 진단비	온열질환 응급실 내원비	폭염 사망 위로금	기후재해 사고위로금	감염병 진단비
15만원 (연 1회)	10만원 (사고당)	300만원 (사고당)	30만원 (사고당)	20만원 (사고당)

※ 기후재해 : 폭염, 한파, 호우, 태풍, 대설, 지진 등

2026년 업그레이드 보장 취약계층 (방문건강 대상자, 임산부) 추가 특약



온열질환 등으로 1일 이상 입원 시
하루 10만원
(최대 5일)



온열질환 등으로 통원 치료 시
1회당 2만원
(연 최대 5회)

기후보험 콜센터
신청기한 :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언제든 가능
02) 2078-4548
(메리츠화재 경기기후보험 보상센터)

필수 서류
❶ 청구서
❷ 진단서(또는 소견서)
❸ 주민등록초본
❹ 통장사본 등

카카오톡 간편 청구 가능!
'경기 기후보험' 채널 추가 후 간편하게 청구하세요!
카톡채널

온가족 보듬사업

가족이 함께하는 인권 인형극

서로 달라도 모두 소중해

인형극 '개미와 배짱이'를 통해
서로의 다름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방법을 배워요!

지금 신청하기



일 시	장 소	대 상	참 가 비
2026.08.22(토) 11:00~12:00	광명시가족센터 5층 프로그램실	취약•위기가족 및 인권교육 희망가정	무료

프로그램 내용


인형극 '개미와 베짱이' 인권이야기


신나는 마술쇼


오프닝 레크레이션


포토타임

선착순 30가정 모집!
*조기마감될 경우 선착순 선정됩니다.

02-2686-0435
온가족보듬사업 담당자

가족센터 광명시가족센터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공공 생리대 모두의 생리대

국비 2억 7천만 원으로 추진!

제공 수량 : 중형 생리대 (2개 1팩 소포장)

설치 장소

19개 동 행정복지센터, 청년동,
종합사회복지관,
여성비전센터 등
50곳



광명시,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도시 입증…출생아 증가율 경기도 1위

박승원 광명시장 “변화하는 사회에 맞춰 광명형 출산·양육 정책 지속 확대할 것”



광명시(시장 박승원)가 촘촘한 출산·양육 지원 정책을 바탕으로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도시’로서 경쟁력을 입증했다. 광명시는 올해 상반기와 작년 상반기 출생아 수를 비교했을 때, 광명시가 경기도 31개 시군 가운데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다고 6일 밝혔다.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 분석한 결과, 광명시의 2026년 상반기 출생아 수가 1천189명으로, 작년 상반기(803명)보다 48.1% 증가했다. 이는 경기도 31개 시군 중 가장 높은 증가율로, 2위 시군의 증가율(28.8%)보다 약 20%포인트 높은 수치이다. 광명시는 이러한 성과의 배경으로 재개발·재건축에 따른 젊은 층 유입과 함께 시민들이 일상에서 체감하는 촘촘한 출산·양육 지원 정책이 시너지를 낸 결과라고 분석했다. 먼저 출산 초기 부담을 덜기 위한 지원을 강화했다. 출산축하금과 아이조아 첫돌 축하금, 산후조리비 등을 지원하고, 임산부와 영유아 가정의 이동을 돕는 ‘아이조아 붕붕카’를 운영해 출산과 육아 초기 경제적·생활 부담을 줄였다.

함께하는 육아와 공백 없는 돌봄체계 구축에도 힘써왔다.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을 지급해 부모가 함께 육아하는 문화를 확산하고, 24시간 긴급 돌봄이 가능한 ‘언제나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한편, 다함께돌봄센터와 국공립어린이집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아이돌봄서비스 지원도 확대했다. 이를 통해 부모들이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안심하며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는 돌봄 환경을 구축했다.

아이와 부모가 체감하는 양육 인프라도 지속적으로 확충했다. 영유아과학체험센터와 아이사랑놀이터, 너울가지놀이실 등 놀이·체험 공간을 조성하고, 배냇자리 육아용품점과 장난감도서관을 운영해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과 부모의 양육 부담 완화를 지원하고 있다. 광명시는 앞으로도 아이를 낳고 키우는 부담을 지역사회와 공공이 함께 나누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아이와 부모 모두 행복한 도시를 만들어 갈 계획이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인구구조와 가족 형태, 돌봄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에 맞춰 광명만의 출산·양육 정책도 끊임없이 혁신해 나가겠다”며 “아이를 낳고 키우는 부담은 줄이고 행복은 키우는 정책으로 ‘아이 키우기 가장 좋은 도시 광명’을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송하성 기자

광명시, 폭염 막는 ‘양심양산’ 무료 대여…9월까지 시청·동 행정복지센터·도서관 등

광명시(시장 박승원)는 연일 이어지는 폭염으로부터 시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오는 9월까지 ‘양심양산 대여사업’을 운영한다고 4일 밝혔다.

양산은 직사광선을 차단해 체감온도를 10~15℃가량 낮추는 효과가 있어 폭염 속 온열질환 예방에 도움이 되고, 자외선 차단으로 피부와 눈 건강을 보호하는 데도 효과적이다. 광명시는 시민들이 이용이 많은 도서관, 복지관, 동 행정복지센터 등 33개 공공시설 1층에 각 40~50여 개의 양산을 비치했다.

누구나 ▲광명시청 본관 ▲여성비전센터 ▲시민체육관 ▲19개 동 행정복지센터 ▲평생학습원 ▲광명·철산·하안·소하도서관 ▲광명·철산·하안종합사회복지관 ▲하안·소하노인종합복지관 등에서 무료로 대여할 수 있다. 특히 올해는 시민들이 사용하지 않는 양산을 기부받아 필요한 시민들이 함께 사용하는 방식으로 운영해 자원순환을 실천하고 폭염 대응에도 힘을 보탠다.

광명시는 시민들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기후의병 탄소저금통 실천항목에 ‘양심양산 기부’를 새롭게 추가했다. 사용이 가능한 양산 3개 이상을 동 행정복지센터에 기부하면 탄소저금통 3천 포인트를 지급한다. 연간 최대 4회까지 참여해 최대 1만 2천 포인트를 받을 수 있다. 지급받은 포인트는 광명사랑화폐(지역화폐)로 전환해 광명사랑화폐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기부받은 양산은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공공시설에 비치해 누구나 자유롭게 빌려 사용할 수 있도록 운영한다.

한편, 광명시는 여름철 폭염대책기간(2026. 5. 15.~9. 30.) 동안 폭염 대응 전담팀(TF)을 운영하고 있다.

송하성 기자









'영어로 피어난 소통, 함께 웃는 마을'

(사)다문화가정협회, 다문화 청소년 지역연계 봉사활동

(사)다문화가정협회(이사장 김상실)는 지난 7월 25일 2026년 삼성꿈장학재단 지원사업 '꿈을 향한 영어 한걸음(Step to Dream English)' 사업의 일환으로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영어 봉사활동 '영어로 잇는 우리 마을'을 진행했다.

이날 봉사활동은 이천시 부발읍 신하1리 마을회관에서 김상실 이사장, 이순희 신하1리 마을부녀회장, 노인회장, 마을 어르신, 학부모, 학생 등 6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됐다. 학생들의 영어 학습이 교실 안에 머무르지 않고, 지역 어르신들과 소통하며 나눔을 실천하는 지역연계 프로그램이다.

참여한 다문화가정 청소년들은 영어 수업을 통해 익힌 인사말과 생활 영어 표현을 활용해 어르신들의 영어 닉네임 만들어 드리기, 학생들이 영어로 자기소개하기, 영어 노래 부르기, 어르신들과 함께 율동하며 영어 노래 부르기, 감사선물 전달 등 다양한 활동을 진행했다.

특히 준비한 자료를 활용해 어르신들과 함께 영어 단어를 읽고,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며 자연스럽게 마음을 나누었다. 어르신들 역시 학생들의 밝은 에너지와 정성스러운 준비에 큰 호응을 보내며 격려했다. 이순희 신하1리 마을부녀회장은 "아이들이 직접 찾아와 영어로 인사하고 노래하며 즐거운 시간을 만들어 주어 어르신들이 매우 행복해하셨다"며 "이번 활동을 통해 다문화가정 청소년들이 지역사회의 소중한 구성원으로 성장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고, 앞으로도 아이들과 어르신들이 함께 어울리는 다양한 교류의 기회가 계속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활동에 참여한 한 학생은 "영어를 배우는 것만 생각했는데, 내가 배운 영어로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줄 수 있어 뿌듯했다"며 "앞으로 영어를 더 열심히 배우고 다양한 사람들과 소통하고 싶다"고 소감을 밝혔다.

김상실 이사장은 "이번 활동은 다문화 청소년들이 영어 역량을 키우는 동시에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 성장하는 소중한 경험이 됐다"며 "앞으로도 영어를 매개로 세대와 문화를 연결하는 다양한 지역연계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꿈을 향한 영어 한걸음" 사업은 다문화가정 청소년들의 꿈과 성장을 응원한다. 송하성 기자

마장도서관, 나만의 독서 취향 찾기 운영

이천시 마장도서관은 오는 8월 25일부터 10월 27일까지 매주 화요일, 성인을 대상으로 「경기도 도서관 독서활동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번 프로그램은 2026년 경기도 독서문화 진흥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며, 시민들이 자신의 독서 취향을 발견하고 꾸준한 독서 습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다. 프로그램은 '나만의 책 취향 찾기'와 '기록하는 독서생활' 두 과정으로 구성해 운영한다.

먼저 '나만의 책 취향 찾기'는 8월 25일부터 9월 22일까지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부터 11시 30분까지 총 5회 진행된다. 독립서점 '하우스결' 공동대표이자 『하마터면 놓칠 뻔 했다, 내 일상』의 저자인 권규태 작가가 강사로 나서 ▲최근 독서 경향(트렌드)과 독서 매체 진단 ▲시대·세대·주제별 좋은 책 ▲하루 15분 독서 루틴 만들기 ▲서평 쓰기와 브런치 스토리 작가 되는 방법 등을 소개한다. 특히 단순히 책을 추천받는 데 그치지 않고 자신의 관심과 취향에 맞는 책을 직접 찾아보고, 지속 가능한 독서 습관을 만들어가는 데 중점을 둔다.

이어 '기록하는 독서생활'은 9월 29일부터 10월 27일까지 매주 화요일 오후 2시부터 3시 30분까지 총 5회 운영된다. 권규태 작가와 독서지도사·문학심리상담사로 활동하고 있는 예남희 강사가 함께하며 책을 읽는 것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자신의 생각과 일상을 글로 기록하고 다른 사람과 나누는 과정을 통해 독서와 글쓰기가 자연스럽게 일상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구성했다. 송하성 기자

이천시, 학생 통학 순환버스 '통학이' 신규 노선 개통해



이천시(시장 성수석)는 교통취약지역 중·고등학생의 통학 편의를 높이기 위해 운영 중인 학생 통학 순환버스 '통학이'의 신규 노선 2개를 개통하고, 오는 8월 24일부터 정식 운행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천시는 지난해 '통학이' 시범 운행을 시작해 통학이 4대를 투입하고 부발·증포·갈산 및 백사·신둔 등 교통취약지역과 시내권 주요 학교를 연결하는 노선을 운영했다. 시범 운행 과정에서 학생들의 이용 수요와 운행 여건을 지속적으로 확인했으며, 이용 현황과 현장 의견을 반영해 운행 시간과 정차 정류장 조정을 보완하는 등 원활한 운행을 위한 운영 체계를 마련했다.

올해는 지난해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관내 학생들을 대상으로 대중교통 이용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시는 설문조사 결과와 지역별 대중교통 이용 여건, 학교별 통학 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기존 시내버스를 이용하기 어렵거나 환승 등으로 통학에 불편이 있는 지역과 학교를 연결하는 신규 노선 2개를 마련했다.

이번에 개통하는 신규 노선은 통학이3과 통학이4로, 마장면과 부발읍에서 이천 시내 주요 학교를 연결한다.

통학이3 노선은 마장면 권역과 시내권을 연결한다. 아름수리아파트에서 오전 7시 20분 출발해 양촌리, 오천리, 마장우체국, 마장면사무소, 마장중학교, 표교리, 안평리, 유산리 등을 거쳐 관고동 등 시내권을 운행한다. 이후 이천고, 증포중, 이현고, 효양중고 등 주요 학교를 연결해 마장면 지역 학생들의 통학 편의를 높일 예정이다. 통학이4 노선은 대월·부발 권역과 시내권을 연결한다. 지엠하이빌(GM하이빌)에서 오전 7시 20분 출발해 대흥2리, 휴먼빌, 성우2단지, 현대7차, 신하리, 효양중고 등을 거쳐 이천고, 이현고, 증포중, 관고동, 양정여고, 두산아파트 등을 경유하고 다산고등학교까지 운행한다.

신규 노선은 8월 18일부터 21일까지 4일간 시범 운행하며, 이 기간에는 학생들이 새롭게 개통되는 노선을 직접 이용해 볼 수 있도록 무료로 탑승할 수 있다. 시는 시범 운행 기간 실제 이용 수요 등을 확인해 정식 운행에 필요한 사항을 점검할 예정이다. 송하성 기자



사업 내용
경기도 출생 미등록 외국인 아동 확인증 카드 발급
(아동 1인 1매)

사업 시군
경기도 10개 시·군
(고양, 화성, 성남, 부천, 안산, 평택, 시흥, 안성, 동두천, 과천)

신청 대상
국내출생, 경기도 거주 중인 출생 미등록 외국인 아동

신청 방법
거주지 관할 시청 또는 시 위탁 센터 방문신청
(방문 전 관할 시 전화문의 / 최초 1회 아동 동반 필수)

구비 서류
부모 신분증, 국내 발행 출생증명서, 아동 사진 파일

혜택
- **어린이집 보육지원금 지급**
- **경기도 공공 의료원 사업 연계**
- **민간단체 지원사업**(의료비, 주거환경 개선, 보육비 등) **연계**

문의처

고양시 031-8075-3347	**성남시** 031-729-3072	**안산시** 031-481-3903
화성시 031-5189-3943	**부천시** 032-625-2927	**평택시** 031-8024-3056
시흥시 031-310-2704	**동두천시** 031-860-2148	
안성시 031-6190-1561	**과천시** 02-3677-2256	



경기도 고양특례시 화성특례시 성남시 부천시 안산시 평택시 시흥 안성 동두천시 과천시



다문화가정 방문교육

이천시가족센터에서는 전문지도사가 가정을 방문하여
맞춤형서비스(한국어교육, 부모교육, 자녀생활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1. **모집기간** | 1월~12월 연중수시모집
2. **모집대상** | 결혼이민자 및 만3세~만12세 이하 다문화자녀 (중도입국자녀 포함)
3. **프로그램** | 한국어교육, 부모교육, 자녀생활서비스
4. **수업시간** | 대상자와 지도사가 협의 후 주중 주 2회, 2시간(쉬는시간20분포함)수업진행
5. **문의전화** | 031-637-5525

※ 방문교육서비스는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사회복지과(맞춤형복지팀) 신청
※ 방문교육은 한 가정에 하나의 서비스가 제공되며,
하나의 서비스가 끝난 후 다른 서비스 제공 가능



이천시가족센터 ICHEONSIFAMILY CENTER

부담 없이 배우자!

센터 한국어 교육 안내



처음이라 막막해도 걱정하지 마세요.
기초부터 고급까지 자세히 배웁니다.

대상: 결혼이민자 및 중도입국자녀!!

1	초급1과정 (1단계)	08.24 ~ 11.25 매주 월/수 오후1시~4시 센터 3층 가람 1실	8월4일 부터 신청
2	초급2과정 (2단계)	초급1과정 이수자 또는 수료자 08.25 ~ 11.26 매주 화/목 오전 9시30분~ 12시30분 센터 3층 가람 2실	
3	중급1과정 (3단계)	초급2과정 이수자 또는 수료자 08.24 ~ 11.25 매주 월/수 오전 9시30분~ 12시30분 센터 3층 가람 2실	8월5일 부터 신청
4	중급2과정 (4단계)	중급1과정 이수자 또는 수료자 09.04 ~ 11.27 매주 목/금 오전 9시30분~ 12시30분 센터 3층 가람 1실	

이천시가족센터 ICHEONSIFAMILY CENTER 수강 문의 031-631-2260(내선3)

문의 : 031-631-2260(내선3)

2026년 하반기

중도입국자녀 한국어교실

한국어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초급 1 | 기초에서 초급까지

과정	요일	일 시	내용
초급1 (1단계)	월/ 수	09.07 ~ 11.18 오후 4시30분~ 6시30분	한국어 기초 과정 한국어 초급 과정

수업대상 : 입국 초기 외국인 부모와 자녀 8가족

초급2 | 한국어 초급 심화과정 (단 초급1 이수자)

과정	요일	시간	내용
초급2 (2단계)	월/ 화/ 수	08.31 ~ 11.25 오후 3시30~5시30분	한국어 초급 심화과정

수업대상 : 중도입국자녀 12세 ~ 18세 10명

수업장소 : 중리동행정복지센터 3층 가람2실
신청방법 : 이천시가족센터 홈페이지 〉 프로그램안내
〉 프로그램 신청 〉 해당과목

이천시가족센터 ICHEONSIFAMILY CENTER



베이커리 전문기술 습득과 자격증 취득!
평택시가족센터, 결혼이민자 취업역량강화사업 진행

평택시가족센터(센터장 이은미)는 결혼이민자의 취업역량 강화와 안정적인 사회·경제활동 참여를 지원하기 위해 '꿈 굽는 베이커리' 사업 7월 교육을 진행했다.

꿈 굽는 베이커리는 결혼이민자 16명을 대상으로 제빵기능사 자격증 취득을 지원하는 직업교육 프로그램으로, 전문기술 습득과 자격증 취득을 통해 취업역량을 높이고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고 있다.

이번 교육은 7월 1일부터 28일까지 매주 월·화·수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까지 진행됐다.

참여자들은 제빵기능사 자격증 취득을 목표로 필기교육 6회와 실기교육 6회에 참여하며 시험 대비에 필요한 이론과 실무능력을 체계적으로 익혔다.

필기교육에서는 제빵 이론과 식품위생, 재료의 특성 및 제조 공정 등을 학습했으며, 실기교육에서는 다양한 제빵 품목을 직접 만들며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제빵기술과 실무능력을 향상했다.

참여자들은 "제빵 기술을 배우는 것뿐만 아니라 자격증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도전할 수 있어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 "앞으로 취업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남은 교육에도 성실히 참여해 자격증을 꼭 취득하고 싶다." 등 긍정적인 소감을 전했다.

이은미 센터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결혼이민자들이 전문기술을 익히고 자격증 취득을 바탕으로 취업의 기회를 넓혀가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결혼이민자의 역량 강화와 안정적인 사회·경제활동 참여를 지원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직업교육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평택시가족센터는 결혼이민자의 경제적 자립과 안정적인 지역사회 정착을 위해 다양한 직업교육과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맞춤형 교육을 통해 취업역량 강화와 사회참여 확대를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인터넷에서 파파야스토리를 검색하세요, 더 다양하고 많은 정보를 만날 수 있어요〉 이지은 기자

평택시가족센터 결혼이민자취업지원사업 메이크업 국가자격증반 국제공모전 수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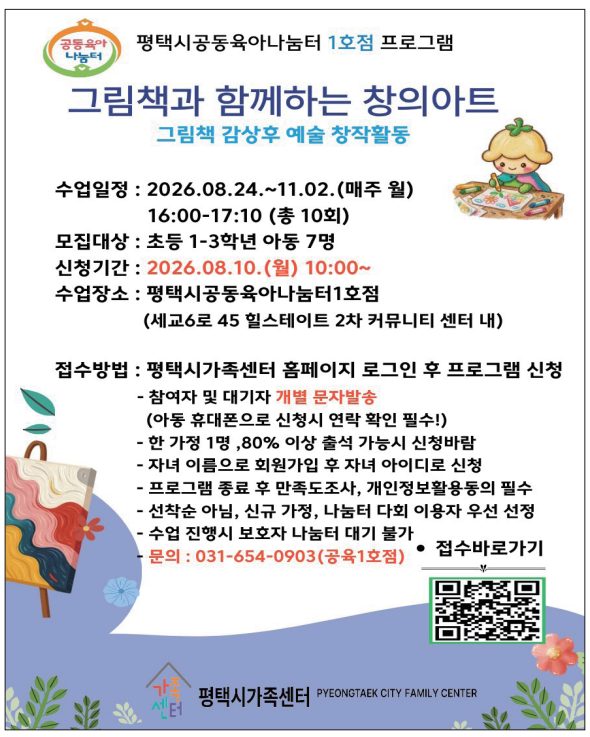
평택시가족센터는 결혼이민자 취업지원사업으로 운영 중인 메이크업 국가자격증반 참여자 2명이 「제25회 월드뷰티아트&디자인 국제공모전」에 참가해 대상과 은상을 수상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전 참가는 결혼이민자들이 교육과정에서 습득한 메이크업 기술을 실제 무대에서 발휘하고, 자신의 역량을 점검하며 전문 분야 진출에 대한 자신감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공모전에서는 고미선 씨가 대상을, 장미영 씨가 은상을 수상하며 그동안 갈고닦은 메이크업 실력을 인정받았다. 두 참여자는 메이크업 국가자격증 취득을 목표로 이론교육과 실기교육에 꾸준히 참여하며 전문기술을 익혔고, 교육과정에서 습득한 기술과 창의성을 작품에 담아 우수한 성과를 거두었다. 이번 수상은 교육 참여를 넘어 전문성을 대외적으로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의미를 더했다. 참여자들은 "열심히 연습한 결과가 좋은 성과로 이어져 매우 기쁘다.", "이번 수상을 계기로 자격증 취득과 취업에도 더욱 자신감을 갖게 되었다." 등 소감을 전했다.

이은미 센터장은 "앞으로도 결혼이민자들이 전문기술을 습득하고 자신의 역량을 마음껏 발휘해 안정적인 취업과 사회참여로 이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직업교육과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이지은 기자









직업을 배우고 진로설계 역량 강화해요!

평택시가족센터, 야생동물 구조관리센터 견학 및 체험

평택시가족센터는 지난 7월 30일 경기도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에서 다문화가족 자녀 총 10명이 참여한 가운데 진로설계지원사업 드림로드(Dream Road) '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 견학 및 체험을 진행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다문화가족 자녀들이 야생동물 구조사와 수의사라는 직업세계를 이해함으로써 다양한 직업을 배우고 진로설계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는 야생동물 구조사와 수의사 직업 소개, 야생동물 구조 관련 교육, 수의사 관련 용품을 이용한 체험 등의 강의와 활동이 진행됐다. 이를 통해 다양한 직업에 대한 이해와 진로 설계에 대해 생각해보고 계획할 수 있었다.

특히 참여자들이 현장에 직접 방문하여 구조된 야생동물들을 눈으로 관찰하는 활동을 통해 야생동물 구조에 대해 생생하게 느끼고 생각하는 기회가 됐다. 이날 프로그램에 참여한 다문화가족 자녀들은 "프로그램을 통해 주변의 야생동물들이 어떻게 구조되는지 이해할 수 있었다", "실제로 수의사가 된 것처럼 체험해볼 수 있어서 즐거웠다." 등 긍정적인 소감을 전했다.

이은미 센터장은 "이번 활동은 다문화가족 자녀들이 사람과 자연이 어떻게 공존하며 살아갈 수 있는지 배우고 관련 직업들을 고민하며 생각하는 매우 유익한 시간이었다"며 "앞으로도 다문화가족 자녀들의 진로설계 역량을 강화하여 직업사회에 안정적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진로설계지원사업 드림로드(Dream Road) 프로그램은 11월까지 운영되며 직업체험, 대학탐방, 직업인 특강, 진학설명회, 해단식 등 다문화가족 자녀들의 자주적이고 건강한 진로설계를 위한 다양한 진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지은 기자

평택시가족센터, 다문화가족 관람 참여형 공연 'Grand Soft Day'

평택시가족센터는 지난 8월 1일 평택시문화재단과 연계해 다문화가족 20명을 대상으로 'Grand Soft Day' 공연을 관람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문화예술을 접할 기회가 부족하기 쉬운 다문화가족에게 다양한 문화 향유 기회를 제공하고, 가족이 함께 공연을 관람하며 소통과 유대감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참여자들은 시각·청각·촉각 등 오감을 활용한 참여형 공연 'Grand Soft Day'를 관람하며 공연의 다양한 요소를 직접 체험하는 시간을 가졌다. 단순히 공연을 관람하는 것을 넘어 작품에 함께 참여하고 교감하는 새로운 문화예술 경험을 통해 가족 간 소통과 공감의 시간을 나눴으며, 일상에서 벗어나 특별한 추억을 만들었다.

이날 프로그램에 참여한 가족은 "가족과 함께 공연을 관람하며 즐거운 추억을 만들 수 있어 좋았다.", "평소 접하기 어려운 공연을 경험할 수 있어 특별한 시간이었다." 등 긍정적인 소감을 전했다.

이은미 센터장은 "이번 문화체험이 다문화가족이 문화예술을 통해 서로 소통하고 가족 간 유대감을 더욱 키우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다문화가족을 비롯한 다양한 가족이 문화와 여가를 함께 누릴 수 있는 기회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평택시가족센터는 다양한 가족의 안정적인 지역사회 정착과 건강한 가족관계 형성을 위해 가족교육, 문화체험, 상담, 지역사회 연계 등 다양한 가족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가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이지은 기자

평택시가족센터, 온가족보듬사업 부모-자녀 체험형 교육 '우리가족 성교육교실' 진행



평택시가족센터(센터장 이은미)는 7월 25일, 경기남부청소년성문화센터와 연계해 부모와 자녀가 함께하는 '우리가족 성교육교실'을 진행했다.

이 프로그램은 부모와 자녀 간 자연스러운 성적 의사소통을 돕고, 올바른 성 가치관과 가정 내 성평등 문화를 형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초등학교 저학년과 고학년으로 나누어 연령별 발달 수준에 맞춘 체험형 교육으로 진행돼 이해를 도왔다.

이날 참가자들은 경기남부청소년성문화센터의 이동식 버스체험관에 올라 생명의 소중함과 성장 과정, 성폭력 예방, 사춘기 변화 등을 쉽고 재미있게 배웠다.

이어 진행된 성평등 볼펜 꾸미기 활동에서는 부모와 자녀가 함께 성평등의 의미를 이야기하고 일상 속 실천 방법을 나누며 건강한 성 가치관을 형성하는 뜻깊은 시간을 보냈다. 특히 체험 중심으로 진행된 교육은 아이들이 성에 대해 거부감 없이 자연스럽게 이해하고 부모와 편안하게 대화할 수 있도록 도와 큰 호응을 얻었다.

참여자들은 "버스체험관에서 직접 보고 체험하며 이야기하니 성에 대해 자연스럽게 대화할 수 있어서 좋았다.", "성평등 볼펜을 함께 만들며 아이의 눈높이에 맞춰 성평등의 의미를 이야기할 수 있어 뜻깊었다." 등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이은미 센터장은 "성교육은 가정에서 부모와 자녀가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어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교육이 부모와 자녀가 서로를 더욱 이해하고 건강한 성 가치관과 성평등 의식을 함께 키워나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평택시가족센터는 교육문화 프로그램인 온기성장클래스를 통해 부모교육과 가족체험활동 등 가족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가족 간 소통과 건강한 가족문화 조성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이지은 기자

평택시공동육아나눔터 4호점

몸튼튼 맘튼튼

폴짝폴짝 체육놀이



동작교육을 통한 다양한 움직임을 체험해 보아요!!

모집대상
A반 : 2024년 1월 ~ 12월생 유아와 보호자 1인, 10가정
B반 : 2023년 1월 ~ 12월생 유아와 보호자 1인, 10가정
(쌍둥이는 정원 미달시 2명 참여가능, 보호자 2인 참석)

수업일시 : 2026. 09. 01. ~ 09. 29. 매주 화요일 총 5회
A반 : 16:00-16:40 B반 : 16:50-17:30, 무료수업

장 소 : 공동육아나눔터 4호점 T.031-654-8449
(비전3로13 LH배꽃마을1단지내, 지역편의시설 1층)

접 수 : 2026. 08. 18(화) 10:30 ~ 08. 20.(목) 18:00(선착순 X)
평택시가족센터 홈페이지 로그인후 프로그램 신청에서
[공육4호점] 폴짝폴짝 체육놀이 클릭후 신청,
홈페이지 회원가입 필수, 자녀와 보호자 동시 신청 필수 !!

참여자 발표 : 2026. 08. 24.(월) 참여자 및 대기자 문자 발송

선정기준 : 1. 2026년 1월~7월 4호점 공간이용 다수 이용자
2. 2026년 1월~7월 4호점 프로그램 신규 참여자
3. 프로그램 신청 순

신청바로가기

A반(24년생) B반(23년생)

공동육아나눔터 가족센터 평택시가족센터 PYEONGTAEK CITY FAMILY CENTER

공연안내

2026 다문화 인식개선
그림자 공연 참여자 모집

'양할머니의 스프'



공연줄거리

땅 속 마을과 숲 속 마을은 자신들이 기른 감자와 당근을 서로 훔쳐갔다고 오해를 해야주 오랫동안 사이가 좋지 않았다. 마을 사람들은 아이들에게 다른 마을을 봐족며녀가 살고 있으니 마을 밖으로 나가지 못 하게 하는데...

땅 속 마을에 사는 두리는 할머니가 들려주는 노랫 속 '꼴렁꼴렁 마을'을 찾아 용감하게 집을 나선다.

그리고 땅 위에서 만난 토끼 '총총이'와 친구가 되어 꼴렁꼴렁 마을을 찾아가는 도중, 저 머리서 들리는 늑대 울음소리!

과연 두리와 총총이는 꼴렁꼴렁 마을에 잘 도착할 수 있을까? 마을을둘러싼 소문과 오해의 진실은?

참여안내

- 일시 : 2026년 08월 22일(토) 10:30~11:30
- 장소 : 북부복지타운 4층(대강당)(평택시 서정로 295)
- 대상 : 부모와 자녀, 가족 단위 신청자 150명
  (추천연령 : 미취학 어린이, 초등 저학년)
- 신청기한 : 2026년 07월 22일(수)
  10:00~마감 시까지
- 신청방법 : 평택시가족센터 홈페이지 및 QR 신청
- 문화전화 : 가족교육팀 031-615-3970
- 신청 시 유의사항
  공연 특성 상 '그림자 공연' 공연 시간 내 어두운 환경이 조성될 수 있습니다. 이 점 유의해주시길 바랍니다.

신청안내

- 관람하시는 가족구성원 모두 신청하셔야합니다.
  (신청데이터에 가족구성원 모두 들어와야 확정)
- 기본설정 : 각각 회원가입 후
  '마이페이지-가족대표설정-가족구성원 찾기'
  (어린이 회원가입 시 SMS인증은 부모님 연락처로)
- 프로그램신청 : 가족대표자 로그인-프로그램신청-가족구성원찾기-제3자동의-신청

〈프로그램 신청QR코드〉

가족센터 평택시가족센터

가족친화문화조성사업
9월 가족놀이터
'꿀벌농장체험'

체험일시	2026. 09. 05(토) 10:00~12:30 (1그룹) 10:00~11:00/ (2그룹) 11:30~12:30
모집기간	2026. 08. 11(화) 10:00~신청마감까지
체험장소	온택 Bee,Plenty(청북읍 청북로 531)
문의전화	가족교육팀 031-615-3970
참여대상	2016~2021년생 자녀를 둔 20가정 (1그룹) 2016~2018년 자녀를 둔 10가정 (2그룹) 2019~2021년 자녀를 둔 10가정 ** 1가정에서 2명만 신청가능!!
접수방법	홈페이지신청 or QR코드

1그룹 2그룹

• 확인요청사항

01 단체문자로 안내드리는 [취소가능기간]외 취소 및 당일 불참할 경우, 다음 가족놀이터 참여에 제한이 있습니다.

02 본 프로그램은 운영 과정에서 사진 촬영이 이루어지며, 해당 사진은 홍보 및 사업 안내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사진 촬영 및 활용에 대한 동의가 어려운 경우에는 프로그램 참여가 제한될 수 있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03 프로그램은 신청 및 확정된 참여 가족에 한하여 이용 가능합니다. 원활한 프로그램 운영과 안전 관리를 위해 추가 가족구성원의 동행 및 참여는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 프로그램 신청 전 확인요청

01 신청 전, 미리 가족구성원 모두 각각 회원가입과 가족대표 지정 및 가족추가 완료!

02 '프로그램 신청하기-가족구성원 선택- 개인정보 제 3자 동의-신청하기' 클릭!
★ 신청 시 '보호자 1명+자녀 1명'으로 2명 접수 확인을 부탁드리며, 그 외는 모두 대기 순으로 변경됩니다.
★ 가족구성원 추가된 경우, 참여 대상이 아닌 가족구성원은 '참여자 제외' 버튼으로 제외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가족구성원 추가 설정이 되지 않은 경우, 보호자와 자녀의 각각 아이디로 접속하여 개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03 신청 후, [마이페이지-참여프로그램]에서 확인 가능! ' 승인대기'로 표시
★ 해당 프로그램 선착순이 아니며, 팝업창 내 순서는 참여확정과 무관함을 안내드립니다.
★ 가족놀이터에 처음 참여하는 신규가정과 다양한 가정에 참여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기존 참여 이력을 고려하여 참여자를 선정할 수 있습니다.

가족센터 평택시가족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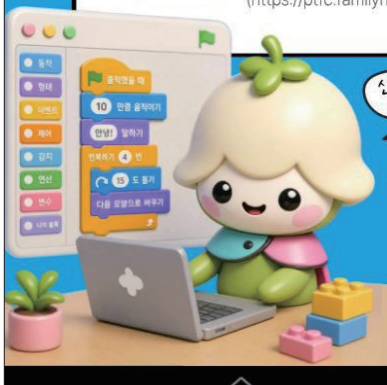
2026년 아버지역할지원사업

아빠랑 플레이데이

LEVEL 3. 직접 만들고 실행하는 코딩 프로젝트

체험대상	8~11세 아동기(16~19년생) 자녀와 아버지 10명(5가족) ★선착순 접수가 아니며, 더 많은 가족에게 참여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아버지역할지원사업 미참여 가족을 우선 선정 예정입니다.
체험내용	블럭코딩 체험 블록을 연결하며 코딩 원리 익히기, 센서와 다양한 기능 체험, 창의적인 프로젝트 제작
체험장소	코딩앤플레이평택고덕점 (평택시 고덕국제대로 99 근린생활시설동 2층 2411, 2412호)
체험일시	2026.09.05.(토) 13:00~15:00
신청방법	평택시가족센터 홈페이지 (https://ptfc.familynet.or.kr/cent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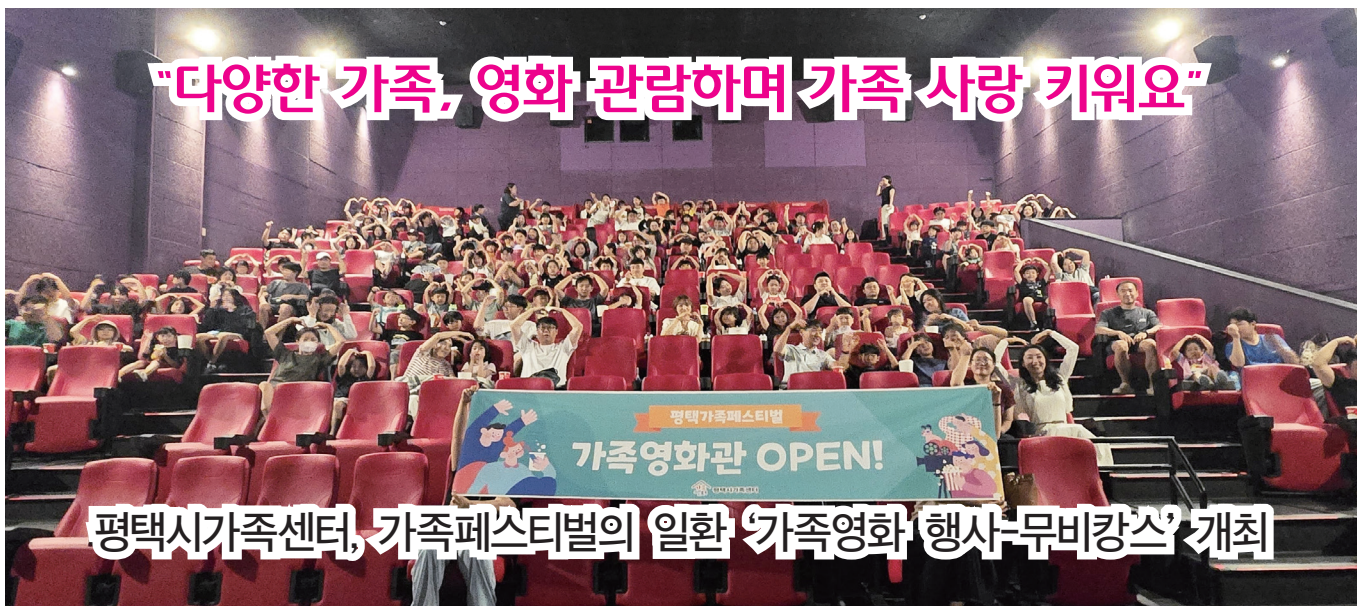
신청바로가기



★ 안내사항 ★

- 신청은 평택시가족센터 홈페이지에서만 가능합니다.(전화 접수 불가)
- 아버지와 자녀 모두 회원가입 및 신청을 완료해야 정상 접수됩니다.
  자녀 또는 아버지만 신청한 경우 대기 접수됩니다.(어머니 대리 접수 불가)
- 대상 연령(8~11세 / 2016~2019년생)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대기 접수됩니다.
- 상반기 아버지교육 참여 여부와 관계없이 모집합니다.
- 선착순 모집이 아니며, 더 많은 가족에게 참여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2026년 아버지역할지원사업 미참여 가족을 우선 선정할 예정입니다.

가족센터 평택시가족센터 가족지원팀) 031-615-3965



"다양한 가족, 영화 관람하며 가족 사랑 키워요"

평택시가족센터, 가족페스티벌의 일환 '가족영화 행사-무비캉스' 개최

평택시가족센터(센터장 이은미)는 지난 7월 25일과 29일, 관내 114가정 총 315명이 참여한 가운데 가족페스티벌의 일환으로 '가족영화-무비캉스'를 진행했다.

평택시 관내 다양한 가족들에게 특별한 문화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행사는 무더운 여름철, 가족들이 시원하고 편안한 공간에서 여가를 즐기며 소중한 추억을 만들었다. 참여자들은 애니메이션 영화를 감상하며 웃음과 즐거움을 나누고, 가족 간 소통과 유대감을 다졌다. 가족페스티벌은 바쁜 일상 속에서 가족이 함께하는 시간을 확대하고, 부모와 자녀가 자연스럽게 교류하며 건강한 가족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기획된 문화·여가 프로그램이다. 이번 무비캉스는 단순한 영화 관람을 넘어 가족이 함께 같은 경험을 공유하고 추억을 쌓으며 가족의 유대감을 높였다. 이날 행사에 참여한 가족들은 "아이와 함께 편안한 분위기에서 영화를 보며 즐거운 추억을 만들 수 있었다.", "가족이 함께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는 기회가 많아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은미 센터장은 "이번 무비캉스가 가족들이 함께 웃고 소통하며 일상 속 행복한 추억을 만드는 시간이 되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가족 구성원 모두가 함께 참여하고 즐길 수 있는 다양한 문화·여가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가족친화적인 지역사회 조성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한편, 평택시가족센터는 가족 소통과 유대감을 증진하고, 건강한 가족문화 확산과 가족친화적인 지역사회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지은 기자

평택시가족센터, 다문화가족 자녀진로설계지원사업 경찰관 직업인 특강 프로그램



평택시가족센터는 지난 7월 25일, 북부복지타운에서 다문화가족 자녀 20명을 대상으로 진로설계지원사업 드림로드(Dream Road) '경찰관 직업인 특강'을 진행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다문화가족 자녀들이 다양한 직업세계를 이해하고 자신의 적성과 진로를 주도적으로 설계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경찰관이라는 직업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직업에 필요한 역량과 역할을 직접 체험하며 진로 탐색의 기회를 제공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이날 참여자들은 경찰관의 주요 업무와 역할에 대한 직업 특강을 시작으로 실제 경찰이 현장에서 사용하는 장비와 과학수사 키트를 체험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경찰관이 수행하는 다양한 업무를 직접 경험하며 직업 현장을 생생하게 이해하고, 자신의 진로에 대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실제 장비를 직접 보고 만져보는 체험은 참여자들의 높은 관심과 호응을 이끌어냈다. 이날 프로그램에 참여한 다문화가족 자녀들은 "경찰관이 어떤 일을 하는지 구체적으로 알게 되어 흥미로웠다.", "실제 경찰 장비를 직접 체험해 볼 수 있어 더욱 기억에 남는 시간이었다." 등 긍정적인 소감을 전하며 다양한 직업에 대한 이해를 넓히는 계기가 되었다.

이은미 센터장은 "이번 활동이 다문화가족 자녀들이 경찰관이라는 직업을 보다 구체적으로 이해하고 자신의 진로를 주도적으로 설계하는 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직업 체험과 진로교육을 통해 다문화가족 자녀들의 진로설계 역량을 강화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평택시가족센터는 진로설계지원사업 드림로드(Dream Road)를 통해 오는 11월까지 직업체험, 대학탐방, 직업인 특강, 진학설명회, 해단식 등 다문화가족 자녀들의 자기주도적인 진로설계를 지원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이지은 기자

평택시가족센터, 가족친화문화조성사업 창의성 높이는 7월 가족놀이터 프로그램



평택시가족센터는 지난 7월 25일, 센터에서 2013~2020년생 자녀를 둔 20가족(40명)을 대상으로 친환경접시와 석고방향제 만들기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부모와 자녀가 함께 작품을 구상하고 완성하는 체험활동을 통해 창의력과 표현력을 기르고, 가족 간 소통과 유대감을 증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참여자들은 친환경접시와 석고방향제 만들기에 참여하며 다양한 색상과 향을 직접 선택하고 조합해 자신만의 작품을 완성했다.

작품을 만드는 과정에서 부모와 자녀는 서로의 의견을 나누고 협력하며 자연스럽게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가족만의 개성과 추억이 담긴 작품을 함께 완성했다. 참여자들은 "아이와 함께 색을 고르고 새로운 색을 만들어가는 과정이 아이의 상상력을 키우는 데 도움이 되어 즐거웠다.", "딸과 단둘이 함께하는 시간이 점점 줄어드는데, 이번 활동을 통해 소중한 추억을 만들 수 있어 행복하다." 등 소감을 전했다.

이은미 센터장은 "부모와 자녀가 함께 소통하며 하나의 작품을 완성해 나가는 과정 자체가 가족에게 의미 있는 경험이 되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가족이 함께 배우고 즐기며 건강한 가족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평택시가족센터는 가족 간 소통 증진과 가족친화문화 조성을 위해 다양한 가족 체험 및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가족의 생애주기와 다양한 욕구를 반영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이지은 기자



"지역에서 역량 발휘하며 성장해요"

평택시가족센터, 결혼이민자 메이크업국가자격증반 종강

평택시가족센터(센터장 이은미)는 7월 28일(화), 결혼이민자 12명을 대상으로 운영한 '메이크업 국가자격증반' 수료식을 진행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결혼이민자의 전문기술 습득과 국가자격증 취득을 지원하여 취업역량을 강화하고, 경제적 자립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운영됐다.

참여자들은 메이크업 이론교육과 실기 중심의 반복 실습에 꾸준히 참여하며 국가자격증 취득을 준비했다. 그 결과 10명이 필기시험에 합격했으며, 이 가운데 3명이 메이크업 국가자격증을 취득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수료식에서는 교육과정을 함께 돌아보고 참여 소감을 나누며 그동안의 노력과 성과를 서로 축하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참여자들은 "처음에는 어려웠지만 꾸준히 연습하면서 자신감이 생겼다.", "자격증 취득을 계기로 메이크업 분야에 계속 도전하고 싶다." 등 긍정적인 소감을 전했다. 이번 교육은 직업에 대한 자신감을 높이고 취업과 미래에 대한 목표를 구체화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은미 센터장은 "교육과정에 성실히 참여하며 자격증 취득이라는 값진 성과를 이뤄낸 참여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축하를 전한다."며 "앞으로도 결혼이민자들이 자신의 역량을 발휘하고 안정적으로 지역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직업교육과 취업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평택시가족센터는 결혼이민자의 취업역량 강화와 경제적 자립을 위해 다양한 직업교육과 자격증 취득 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취업 연계와 사회참여를 지원하는 맞춤형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이지은 기자

3군 어울림 군인가족 계절체험 학습 '여름아 놀자' 프로그램



평택시가족센터는 지난 7월 25일, 오성면 평생평소로컬푸드에서 관내 육·해·공 3군 군인가족 16가족을 대상으로 군인가족 계절체험학습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2026년 평택시 군인가족지원사업의 일환으로, 군인가족의 복지 증진과 건강한 여가문화 형성을 지원하고 가족 간 유대감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참여자들은 제철 하미멜론 수확체험을 비롯해 수박화채 만들기와 오이장아찌 만들기 등 다양한 농촌 체험활동에 참여하며 가족이 함께 소통하고 추억을 쌓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소감을 나누고 서로의 경험을 공유하는 시간을 통해 가족 간 친밀감을 높였다.

참여자들은 "평소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이 부족했는데 즐거운 추억을 만들 수 있어 뜻깊었다.", "아이와 함께 자연 속에서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어 만족스러웠다." 등 긍정적인 소감을 전했다. 이은미 센터장은 "평택은 육·해·공 3군이 주둔한 도시인 만큼 군인가족이 지역사회 안에서 행복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앞으로도 군인가족의 복지 증진과 가족 간 유대감 향상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이지은 기자

평택시가족센터, 온기성장클래스 부모교육 '방관하지 않는 부모가 키우는 관계 해결력'



평택시가족센터는 지난 7월 24일, 센터에서 초등자녀를 둔 부모를 대상으로 '방관하지 않는 부모가 키우는 관계 해결력'을 주제로 부모교육을 진행했다.

이번 부모교육은 또래 갈등에 대한 발달적 이해를 높이고, 자녀의 관계 갈등 상황에서 건강한 중재 역할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교육을 통해 참가자들은 부모가 자녀의 갈등을 대신 해결해 주는 과도한 개입이나 방관에서 벗어나, 자녀가 스스로 관계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돕는 '지혜로운 관계 조절자'로서의 역할과 소통 방법을 배웠다. 또한 이날 교육에서는 자녀의 또래 갈등 원인과 발달 특성을 이해하고, 갈등 상황별 부모의 적절한 개입 방법과 효과적인 의사소통 방법이 전달됐다.

특히 부모가 자녀의 문제를 대신 해결하기보다 스스로 관계를 풀어나갈 수 있도록 지지하고 격려하는 실천 방안을 함께 살펴보게 해 큰 호응을 얻었다. 참가자들은 "자녀의 친구 갈등에 어디까지 개입해야 할지 늘 막막했는데, 방관과 개입 사이에서 중심을 잡는 명확한 기준을 얻게 되었다.", "오늘 배운 대화법을 통해 아이가 스스로 관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주는 부모가 되겠다.", "사소한 갈등을 방치하지 않는 관심이 최고의 학교폭력 예방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등 소감을 전했다. 이은미 센터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부모가 자녀의 관계 회복 과정을 지지하고, 자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돕는 소통 방법을 익히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란다. 앞으로도 다양한 부모교육을 통해 건강한 가족관계 형성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평택시가족센터는 가족 내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심리·정서적 어려움과 갈등 해결을 위해 개인·부부·가족상담, 면접교섭상담 등 다양한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지은 기자